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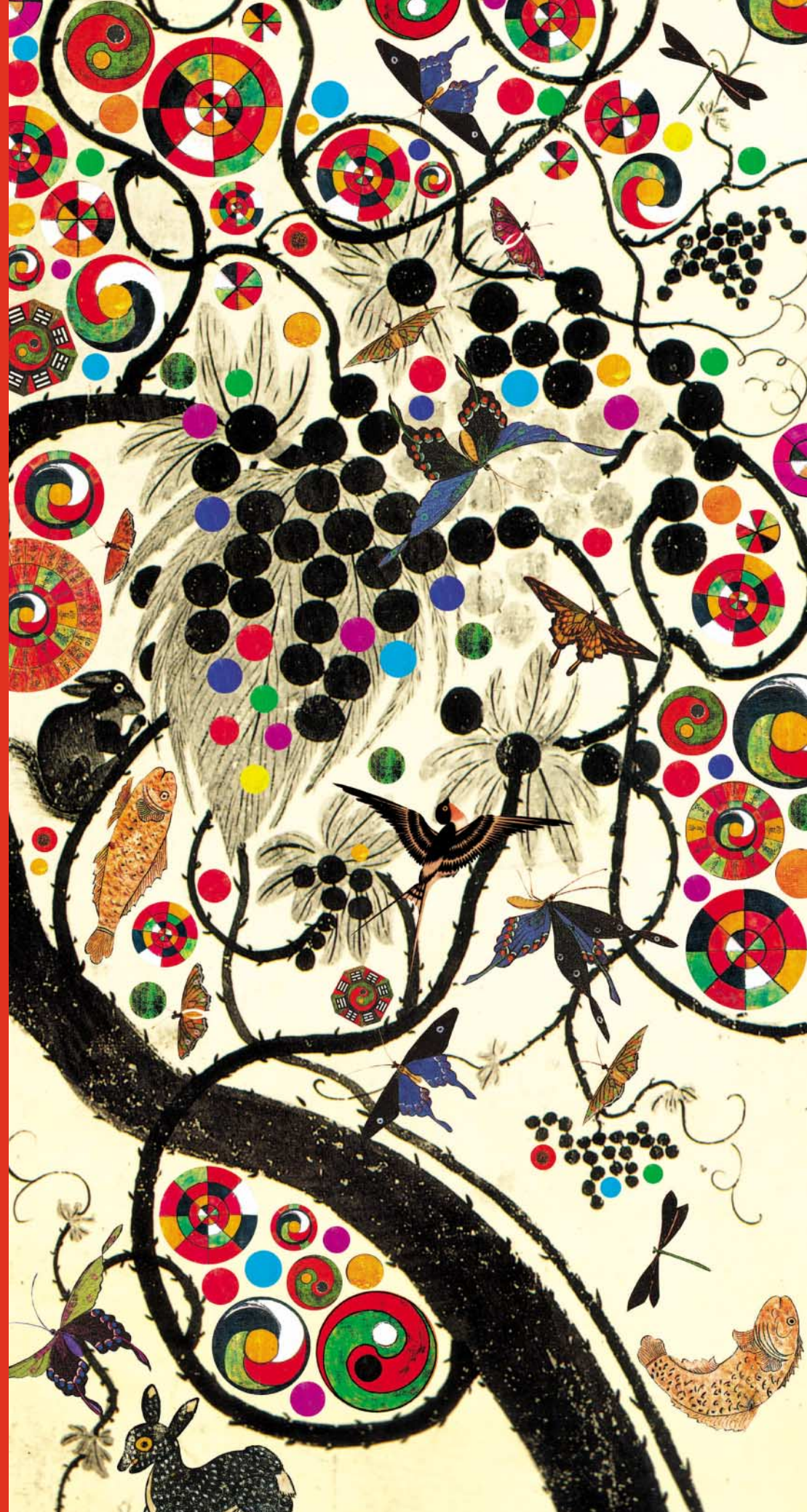
우현 대위집

탄생 백주년 기념 국제학술포럼

| 국제학술포럼 |
주제 : 동아시아 근대 미학의 기원
— 한·중·일을 중심으로
일시 : 2005년 8월 12일(금) 10:00~18:00

| 전시회 |
주제 : '우현 - 한국미학의 선구자' 전
우정의 동아시아를 향하여
일시 : 2005년 8월 12일(금) ~ 18일(목)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실

문의 _ (재)인천문화재단(433-1710)



Good Morning
굿모닝인천

INCHEON

2005 | 8

2005년은 인천투자의 해, Buy Incheon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16th Asian Athletics Championships 2005 INCHEON

세계는 아시아로, 아시아는 인천으로!

9월1일~4일 문학경기장

참가국 및 인원 : 아시아 45개국 선수 임원 1,200여명 및 북한선수·응원단 200여명 참가



Incheon, Gateway to Northeast Asia

시민의 힘 하나로! 인천의 힘 세계로!

굿모닝인천

2005.8 (통권 140호)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편집인 공보관 이부현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편집위원 김미희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하장원(시공보관실)·김성환(자유사진가)·김정식(자유사진가)



10



36



48

04 제 3회 인천해양축제 (3rd Incheon Ocean Festival)
여름 축제 |

09 무의축제

10 여름방학 특집 | '물' 관련 체험학습장

14 이달의 공연 | 여성전자현악4중주 벨라트릭스 외

20 고유섭의 생애
우현(又玄) 탄생 100주년 기념 |

22 국제학술심포지엄 & 전시회

24 굿인천 굿뉴스 | 인천기업사랑운동 본격화 외

27 의정소식 | 시의회 개원 14주년 기념행사 개최 외

28 군·구 풍향계 | 부평구 한미 친선협의회 개최 외

29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식 | 미국 바이오관련 12개 업체 투자유치 기대 외

30 조명 | 서구 외국어특구

32 광복60년 | 8월15일 인천의 모습

35 yummy yummy |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음식점

36 인천에서 잘 먹고 즐겁게 사는 법 | 약수터

39 프리즘 | 담장없애기

40 염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 ⑩ 부평도호부청사(인천시 유형문화재 제 2호)

43 앓, 나도 이런 일 있었는데 | 할인회원권 사기

44 만화로 보는 인천의 최초·최고, 유일시리즈 | ⑧ 최초의 해군사관학교

46 인천의 물류이야기 | ⑧ 인천항만공사 출범

47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 장염

48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스무 번째 사람 | 신인미 마리 임마누엘 수녀님

52 독자마당 | 내 이름은 오광복 외

55 Info Box | 시청에서 무료법률상담 받으세요 외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광고문의 (032-440-2042, 2071)



발행처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5년 8월 1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0-84900-42-81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설명 _ 소청도 앞바다에서의 갯바위 낚시

바다와 함께 ~ 인천과 함께 ~

8월 4일(목) ~ 6일(토) / 용유도 왕산해변 일원

夏夏好好... 인천의 여름바다가 즐겁다. 파도 소리와 어울린 락 음악의 경쾌한 비트음, 요리조리 빠져 나가는 낙지 맨손잡기 그리고 무인도에서의 반나절 로빈슨 크루소 경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로 인천의 8월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해양선상투어

8월4일~6일 오전10시~오후6시
삼목선착장 · 연안부두



두둥실 배 띄워라~ 갑판위에서 인천 앞바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 삼목선착장 코스와 연안부두 코스로 운영된다. 삼목선착장을 출발해 신도 · 모도 · 장봉도를 거쳐 드라마 <풀하우스>와 <슬픈연가> 세트장으로 유명해진 시도를 구경하고 다시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와 선상에서 다채로운 라이브 공연과 댄스 공연을 즐기면서 인천 주변의 섬들을 구경할 수 있는 코스가 있다.

갯벌체험행사

8월4일~5일 오전10시~오후1시, 6일 오전10시~오후2시
왕산해변 갯벌



맨손으로 고기도 잡고 조개도 캐요. 서해안 갯벌에 맨발로 들어가 그곳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생태계의 중요성도 느껴보자. 무한한 서해안 갯벌에서 무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맨손으로 고기잡기 대회도 열린다.

무인도체험행사

8월4일~5일 오전10시~오후1시, 6일 오전11시~오후2시
사렴도

압축공기를 수면위로 내뿜으며 물위로 떠가는 공기 부양정을 타고 무인도로 건너가 이색적인 자연경관을 감상해보자. 썰물로 물이 낮아질 때만 나타난다는 신기루 같은 천연 모래언덕을 볼 수 있는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면 로빈슨 크루소 따라잡기 반은 성공한 듯.



선상낚시대회

8월4일~5일 오전10시~오후4시, 6일 오전11시~오후6시
왕산해변 앞바다

강태공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행사. 인천앞바다 한가운데서 고기도 잡고 상도 받자. 평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해군 · 해경함정 공개행사

8월4일~5일 오전10시~오후5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부두

일반인에게 쉽게 공개되지 않는 해군부대 내부가 궁금했다면 이 행사를 절대로 놓치지 말자. 뿐만 아니라 TV에서만 보던 최신 군함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해군함정도 타보고 멋진 해군아저씨들의 세일러복을 입어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경축음악회

8월5일 오후7시30분~9시30분 / 왕산해변 특설무대

해양축제의 시작을 알리며 최정상의 인기가수들이 출연해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채널[V]-TV와 함께하며 신혜성, MC몽, 박혜경, 별 등의 인기가수들을 만날 수 있다.



가족 모래조각대회

8월4일~6일 오후1시~2시 / 왕산해변

이날 만큼은 나를 로망으로 불러주세요~ 가족 모두가 백사장을 아틀리에 삼아 모래로 근사한 작품 하나를 만든다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좋고 상도 받아 좋은 일석이조의 행사가 될 것이다.



해양레포츠 체험

8월4일~6일 오후1시~6시 / 왕산해변 앞바다

진정한 해양레포츠의 묘미가 여기에 다 모였다.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수상·제트 스키, 윈드서핑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쯤되면 인천이 레캉스(레포츠+바캉스)의 천국으로 소문나지 않을까.



아마추어 비치발리볼 대회

8월4일~6일 오후2시~4시 / 왕산해변 특설 코트



작렬하는 태양, 가슴을 확 뚫어주는 바닷바람, 귀가 베일 것 같은 파도소리 탓일까. 해변에서 즐기는 발리볼은 누구든 프로 선수로 착각하게 만든다. 가족 또는 일반 단체로 참가할 수 있으며 우승과 준우승 팀에겐 승리의 기쁨과 함께 상이 주어진다. 이번엔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

대한민국 락-페스티벌

8월4일 저녁7시30분~9시30분
왕산해변 특설무대

락이 있는 곳에 젊음이 있고 젊음이 있는 곳에 해양축제가 함께한다. 바다와 락, 이처럼 드넓고 좋은 무대가 또 있을까. 케이블 TV 공개방송으로 열리는 락 페스티벌에는 부활, 마야, 캔디맨, G-고릴라, 오!브라더스 등이 출연해 젊음의 열기를 바닷물에 식힌다.



해변가요제

8월5일 오후2시~4시 / 왕산해변 특설무대

누구나 참여해 노래실력 뿐 아니라 숨겨진 개인기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 푸른 파도소리를 뒤로 하고 흥이 절로 날 수밖에 없는 자리. 또 한가지 볼거리라면 터키와 이집트의 전통춤, 일명 배꼽춤이라 불리는 밸리댄스의 매력적인 율동도 선보인다.



서해안 풍어제

8월6일 오전10시~오후5시 / 왕산해변 앞바다 바지선



비나이다~비나이다~인천앞바다의 평안을 비나이다~바다행사에 빠질 수 없는 전통의식. 배와 사공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배연신굿 공연을 통해 인천의 발전을 기원한다.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이 초청돼 공연한다.

비나이다~비나이다~인천앞바다의 평안을 비나이다~바다행사에 빠질 수 없는 전통의식. 배와 사공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배연신굿 공연을 통해 인천의 발전을 기원한다.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이 초청돼 공연한다.

3rd Incheon Ocean Festival



인천항 갑문개방행사

8월4일~5일 오전10시~오후5시, 6일 오전10시~12시
월미도 갑문

인천이 국제적인 항구도시임을 실감할 수 있는 곳. 국내외 각종 선박들이 화물을 싣고 나르는 과정을 그림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거대한 외항선들이 눈앞에 와 있을거다.



만화주제가 경연대회

8월4일 오후2시~4시 / 왕산해변 특설무대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해양축제에는 이 노래쯤 되어야 어울리지 않을까? 온 식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만화주제가 하나는 꼭 준비해가자. 동심도 찾고 아이들과 공감대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해상 불꽃축제

8월5일 밤9시30분~9시50분 / 왕산해변 앞 해상



해양축제라고 해서 바다와 육지에서만 끝나지 않고 하늘에까지 축제분위기가 이어진다. 바지선 위에서 2천발이 넘는 폭죽으로 여름 밤하늘을 불꽃으로 수놓는다. 하늘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하늘이 되는 20분간의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진다.

청소년 해양견학투어

8월4일~6일 오전9시~저녁7시
인천도심 및 왕산해변 일원

올여름에는 어떤 체험을 하며 방학을 보람차게 보낼까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강추'. 수도권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갑문 견학, 선상투어, 갯벌체험, 해양레포츠 체험 등 해양축제를 한꺼번에 패키지로 즐길 수 있다.



말아톤 락-페스티벌

8월6일 오후4시~밤10시 / 왕산해변 특설무대



말아톤의 감동을 영화에서만 찾지 말자. 이번엔 음악공연에서 찾자. 말아톤 락-페스티벌! 인천의 실력 있는 18개 락밴드가 릴레이식 공연을 펼친다. 이 공연에서 'ROZE', '폴리스라인', '샤인' 등의 직장인 밴드와 인디밴드가 해양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말아톤의 감동을 영화에서만 찾지 말자. 이번엔 음악공연에서 찾자. 말아톤 락-페스티벌! 인천의 실력 있는 18개 락밴드가 릴레이식 공연을 펼친다. 이 공연에서 'ROZE', '폴리스라인', '샤인' 등의 직장인 밴드와 인디밴드가 해양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시 간	8월 4일 (목)		8월 5일 (금)		8월 6일 (토)	
10:00~19:00	• 해양가족캠프 • 해양선상투어 (삼목선착장, 연안부두)		• 청소년해양견학투어 • 한국해양소년단해양대회		• 제1회 인천시장배 전국종별요트경기대회	
10:00~13:00	갯벌체험 행사 (맨손고기잡기대회/낙지잡기 · 조개캐기 체험)					
10:00~13:00	무인도체험 (해경공기부양정 승선체험)					
10:00~16:00	선상낚시대회					
10:00~17:00					서해안 풍어제	
13:00~14:00	제1회 인천시장기 전국요트선수권 대회 개회식			제1회 인천시장기 전국요트선수권 대회 시상식		
13:00~14:00	가족대항 모래조각 대회					
13:00~18:00	해양레포츠헤임 (모터보트시승/수상 · 제트스키/바나나보트/윈드서핑)					
14:00~16:00	만화주제가경연대회 (가족노래자랑)			해변가요제 (하쇼하벨리댄스 공연)		공 연 준 비
14:00~16:00	아마추어 비치발리볼 대회					
16:00~18:00	공 연 리 허 설			공연리허설		해양축제 '말아톤 Rock festival' (1부)
18:30~19:00				바다	해상퍼레이드	
19:00~21:00				무대	해경관현악단 및 하쇼하벨리댄스공연	무의도 춤축제 (무의도)
19:10~19:20				인천해양축제 기념식		
19:30~21:30	[개막 전야제]대한민국 락-페스티벌 (V-TV 공개방송)		[경축음악회] (V-TV 특별 공개방송)		해양축제 '말아톤 Rock festival' (2부)	
21:30~21:50	공 연 준 비		해상불꽃축제 'Sea Fire Art Show'			
22:00~23:00	김광한의 '뮤직비디오콘서트'					
상 설	왕산행사	• 인천시홍보관 • 아시아육상대회홍보관 • 페이스 · 바디페인팅 • 맥주페스티벌 • 모래조각전 • 해양레포츠헤장비전시				
	연계행사	• 중구청 주관 연안부두 연계행사 • 함정공개 (해경 · 해군부두) • 인천항 갑문개방 • 팔미도등대 체험행사				

http://www.ocean festival.net [435-7100]

글 _ 김미희 (편집위원 · meehee75@incheon.go.kr)

| 해양축제장에 오는 길 |

일반 승용차

용유도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해 영종대교를 지나 용유 · 무의 표지판을 따라 들어서면 달을 수 있 다. 또는 월미도에서 영종행 여객선 (용주해운 762-8880)을 이용해 영 종선착장(구읍나루터)에 내린다. 공 항 남로를 이용해 을왕리 표지판을 따라 달리면 마시란해변-선녀바위해 변-을왕리해변-왕산해변에 차례로 달는다.

서틀버스

운영기간 : 8월4일(목) ~ 6일(토)
08:30~01:00

운영코스(총9대)

제1코스 : 연안부두 ↔ 인천역 ↔ 왕 산해변(1시간 간격운행)
제2코스 : 왕산해변 ↔ 삼목선착장 (선상투어 등 단체운영)

시내버스

좌석버스 : 301번, 306번
일반버스 : 202번
(영종선착장→을왕동)



여름 축제 | 무의축제



무희, 무의에 환생하다

8월 5일~6일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예로부터 멀리서 보면 옷자락을 나풀거리는 무희(舞姬)같다고 이름이 붙은 섬 무의도. 이곳에 무희들이 다시 환생한다. 올해로 벌써 여섯 번째 맞는 ‘무의도 여름바다 춤 축제’에서다.

무의도는 아름다운 경치는 물론 영화 실미도, 드라마 천국의 계단 세트장 등으로 여름 피서철 은 물론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가 되었다. 이곳에서 여름 더위를 쫓는 피서객 들과 평소 문화 공연을 자주 접할 수 없는 섬사람들을 위해 공연예술 축제가 펼쳐지는 것이다.



전야제 시의 숨결

‘2005 춤추는 섬 무의도 여름바다 춤 축제’의 전야제는 ‘시의 숨결’로 열린다. 문학박사 고정욱, 방송인 전유성, 강 만수 시인과 최영규 시인 등이 초청돼 시낭송을 하고 독자와 관객들도 함께 시를 낭송하며 시의 숨결을 느껴보는 시 간이다. 여기에 춘천마임축제 예술감독 유진규 씨의 마임과 설치작가 신중택 씨의 퍼포먼스가 무대에 올라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다.

이어 2부 순서로 시인 함성호, 윤영일 씨의 시낭송이 이어진다. 초청시인과 초청객은 무의도 축제를 테마로 시를 짓고 낭송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와 함께 함지민 가족의 공연과 우리소리공연의 즉흥 공연, 포럼 등도 곁들여진다.

공연과 이벤트

축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춤 공연. 노중선 풍물단의 사물놀이예에 이어 댄스스포츠, 살사 댄스, 발리댄스, 한국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춤이 공연된다. 춤을 선보이는 이들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내로라하는 춤꾼들. 김상현 인천댄스스포츠아카데미 원장의 댄스스포츠, 발리댄스 코리아 인천지부장 민경초 씨가 이끄는 하쇼하 무용학원의 발리댄스, 레옹과 마녀의 살사댄스, 시립무용단 예술감독 및 상임안무를 맡고 있는 한명옥 감독의 한국무 용 등이 무대를 빛내는 것. 여기에 요들송과 색소폰 연주, 시낭송 등이 함께 한다. 관객들은 댄스파티와 노래자랑, 가 면무도회 등을 함께해 축제를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가 된다. 한여름 밤 파도소리에 어우러지는 춤사위는 무의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름 낭만을 전해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문의 _ 무의도축제위원회 · 무의도아트센터(http://www.muuido.org, 016-542-1530)



'물' 체험하며 더위야 가라

여름방학이면 물놀이를 가자고 조르는 아이들. 하지만 엄마 아빠들은 무작정 해변으로 떠나자니 뭔가 배울 거리가 아쉽기만 하다. 물을 느끼고 체험하며 자연 사랑을 배울만한 체험학습장이라면 어떨까? 아이도 만족, 부모님도 뿌듯해할 만하다.

인천 잔물의 추억맛보기 해양생태공원



소래포구에 자리잡은 해양생태공원으로 들어서는 다리를 건너면 양쪽으로 갯벌체험장이 자리 잡고 있다. 멀리서 보아도 뽀글뽀글 구멍을 만들며 올라오는 칠게, 농게 따위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체험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공원 안쪽에 자리 잡은 생태학습관까지 가는 동안 공원 군데군데 소금창고가 남아있어 이곳이 7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제일의 천일염 생산지였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소금창고는 운치도 있거니와 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돌아 더위를 잠시 피할 수 있다.

생태학습관에는 염전과 소금을 생산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 소래의 역사사진, 생태공원의 모습 등이 전시돼 있어 체험에 앞선 학습에 효과적이다.

학습 후에는 체험을 해보는 것이 순서. 1만4천평 규모의 염전학습장에서는 실제로 소금이 생산되고 있다. 저수지에 바닷물을 모아놓고 난치지역, 늪태지역, 결정지역으로 옮겨오는 동안 바닷물이 소금으로 변신하는 과정이 한 눈에 들어온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아저씨들이 구슬같은 땀을 뻘뻘 흘리며 소금을 긁어내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다. 염전학습장 옆에는 수차도 있다. 옛날에 소금을 만들기 위해 실제로 쓰였던 도구들이다. 수차를 밟으며 물을 길어 올리는 것 또한 아이들에게는 좋은 체험이다.

생태공원이니 만큼 따로 설명을 듣거나 공부할 필요 없이 갯벌에서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고 1km에 달하는 해양생태관찰데크에서 지천으로 자라있는 염생 식물이나 갯가 생물들을 관찰하노라면 저절로 학습이 되고 체험이 된다.

찾아가는 길 _ 남동구청 정문 앞을 지나 소래 방향으로 직진한 후 제2경인고속도로고가 밑에서 좌회전해 농로를 따라 1.4km 정도 들어간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21번 버스를 이용해 남동구청을 지나 제2경인고속도로로고가 밑에서 내려 농로를 따라 걸어 들어간다.

이용방법 _ 개인 및 단체관람 연중 무휴 (453-2670)

강화 남단 여차리에 문을 연 갯벌센터는 흔히들 '갯벌은 조개 캐고 게 잡으며 노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오해와 잘못알고 있는 생각들을 바로 잡고 갯벌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곳이다.

갯벌센터는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환경 사랑이 묻어난다. 행여 풀잎 하나라도 다칠 새라 누구라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센터 건물까지 400여 미터를 고스란히 걸어 들어가야 만날 수 있다. 입장을 하려면 또 한 번의 낯선 문화와 인사해야 한다. 모든 입장객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관람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맨발로 다니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듯이 자연도, 갯벌도 모두 조심스럽게 대하라는 일종의 예고편인 셈.

센터의 이해경 실장은 "갯벌센터는 갯벌을 몸으로 체험하기 보다는 갯벌의 소중함을 배우는 곳"이라며 갯벌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땅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센터에 들어서면 강화갯벌 모형 전시대에서 저어새의 서식지와 번식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환경 관련 도서들이 전시돼 있고 에코샵에서는 환경물품들이 판매된다. 한쪽에는 입체만화경 두 대가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두 눈을 바짝 대고 만화경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강화에서 관찰되는 20여 종의 새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낸다.

로비의 왼쪽이 제1전시실이다. 갯벌의 기초부터 갯벌의 먹이사슬과 갯벌 생물들까지 갯벌의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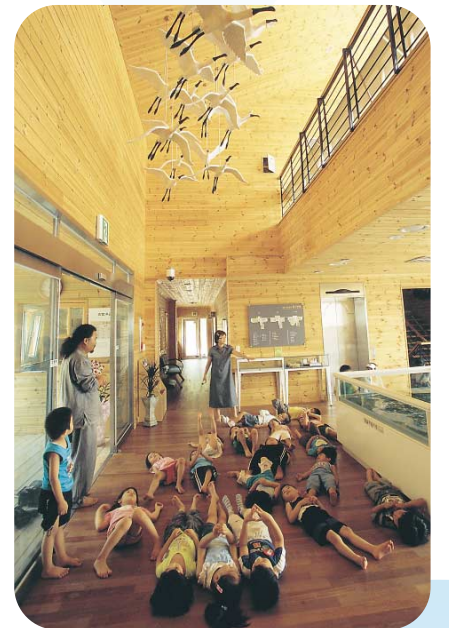
다시 로비로 나오면 지하로 내려갈 것인지 2층으로 올라갈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어느 쪽으로 가든 계단에서부터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으니 고민할 필요 없다. 계단 벽면에는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갯벌 생물들이 울룩볼룩 전시돼 있다. 지하에는 다목적 영상실과 철새 연구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데크 등이 자리 잡고 있고 2층에는 망원경으로 갯벌을 관찰 할 수 있는 전망대와 갯벌 연출모형 등이 있다.

이렇듯 자유롭게 관람을 하며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단체의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하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강화환경운동연합에서 갯벌의 소중함, 자연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단체의 형편에 맞게 진행해 준다.

찾아가는 길 _ 초지대교를 지나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강화 남단 도로를 타고 전등사 방향으로 향한다. 동막해수욕장을 지나 10여분을 달리면 왼편으로 갯벌센터가 나타난다.

이용방법 _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개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고 단체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937-5057)

자연사랑 갯벌사랑 갯벌센터



영흥도에 옮겨온 작은 아쿠아리움 해양수산체험학습관

인천 바다에는 어떤 물고기가 사는지, 갯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한 아이들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는 곳이 있다. 우리시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해양수산체험학습관이다.

웅진군 영흥도에 있는 학습관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2층에 자리잡은 영상실로 안내된다. 특수 안경을 쓰면 '바다이야기'라는 입체 애니메이션이 눈앞에 펼쳐진다.

영화 관람 후 학습관으로 안내된다. 학습관에 들어서면 인천의 섬, 수산, 바다에 대한 안내 패널과 갯벌이 왜 소중한지, 밀물과 썰물은 왜 생기는지 등 평소에 바다와 관련해 아이들이 궁금해 할만한 내용의 안내판과 만난다.

드디어 오감으로 체험할 차례. 바위 위에 동죽, 소라, 골뱅이 등이 오밀 조밀 붙어 있어 손으로 만져 볼 수도 있고 영흥도 앞바다에서 바닷물을 끌어와 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터치풀에는 불가사리, 숭어, 소라, 박하지, 바다선인장, 우럭 등 인천 바다의 생물들이 여유롭게 유영하고 있다. 아이들은 불가사리를 직접 만져보고, 계도 잡아 올려보면서 바다생물들과 친구가 된다.

이번엔 귀로 체험할 차례. 여러 가지 크기의 소라껍질들이 어린이들에게 바다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화석으로 탁본을 뜰 수 있는 전시대와 말미잘과 꽃게를 단면으로 잘라 놓은 모형은 지나고 물고기의 눈으로 물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꾸며놓은 전시대를 거치면 어느새 바다를 온 몸으로 느끼게 된다.

실내에서 물고기 구경하는게 좀 지루했다면 이제 솔숲과 갯벌을 만나러 가보자. 아직까지는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에는 1200그루에 달하는 소나무들이 자리 잡은 솔밭을 해송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고 내년에는 광활하게 펼쳐진 영흥도 갯벌도 체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물론 물때가 잘 맞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몸으로 갯벌 체험까지 한 아이들은 이제 인천의 바다, 섬, 수산에 대해 '감'을 잡았을 터이다.

찾아가는 길 _ 서해안고속도로 월곶IC로 나와 시흥, 시화방조제를 지나 대부도에서 선재대교, 영흥대교를 차례로 거치면 영흥도다. 영흥도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잡아 용담리해수욕장을 지나면 영흥화력발전소,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이정표가 나온다.

이용방법 _ 오전 9시~오후 6시, 개인관람은 할 수 없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단체로 이용할 수 있다. (883-0398)



물 사랑이 풍풍풍 물홍보관

남동정수장에서 운영하는 물홍보관(남동구 장수동)은 우리생활에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게 해주는 곳이다. 물홍보관에서는 물 이미지관을 시작으로 물의 변천사, 급수시스템, 수질관리시스템 등을 배울 수 있는 전시관을 차례로 둘러보며 '물' 공부를 할 수 있다.

방문객은 우리집에 수도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구역을 지나 커다란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팔뚝만한 물줄기를 보며 탄성을 내지르기도 한다. '수분측정기' 코너에서는 내 몸속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직접 저울에 올라가 측정해 볼 수 있다.

물질약 방법과 물사랑을 일깨우는 영화를 보고 나면 다음 코스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IO CANVAS'. 손으로 그림자를 만들면 그림자를 본 물고기들이 먹이를 주는줄 알고 모이는 듯한 모형이다. 아이들은 저마다 손을 이리 저리로 움직이며 물고기들 물이에 신이 난다. 한 걸음 옮기면 '물 피아노'다. 파이프 오르간 모양을 응용한 건반을 누르면 파이프에서 해당하는 '음'만큼의 물이 올라가며 소리를 낸다.

'수도박사' 코너로 나오면 컴퓨터가 숙제를 해결해 준다. 자기 이름을 입력하면 견학자료와 함께 견학을 다녀왔다는 증빙자료까지 친절하게 출력해주시 말이다.

홍보관을 차례로 둘러보고 '솔 솔 랄 라 솔 솔 미~' 소리와 함께 물 피아노를 연주하노라면 아이들의 물 사랑 높이도 음계만큼이나 조금씩 올라간다.

찾아가는 길 _ 주안역에서 33번, 제물포역에서 22번 시내버스를 이용해 장수초등학교 앞, 부평·송내역에서 103번 좌석버스를 이용해 남동정수장 정문 앞에서 하차한다.

이용방법 _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일·공휴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휴관) 사전 전화예약에 의한 개인 및 단체관람 (870-9467)

글 _ 정경애 (편집위원 · happyjka@incheon.go.kr)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갯벌, 몸으로 느껴요 학생해양탐구수련원 & 해양탐구학습장

강화의 갯벌센터가 갯벌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배우는 곳이라면 우리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해양탐구수련원과 해양탐구학습장은 갯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갯벌센터에서 고개 하나만 넘으면 달게되는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의 학생해양탐구수련원에서는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강화갯벌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을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갯벌탐사, 생태계탐사, 지질탐사, 천체관측 등의 해양탐구활동을 할 수 있다. 갯벌탐사는 주로 5월부터 10월까지 학교단위로 운영되고 해마다 가족공동 해양탐사대회도 열린다. 개인은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고 학교단위로 예약을 받아 운영된다. 한편 영종도에는 해양탐구학습장이 운영되고 있다. 주로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장으로 이용되는데 인솔교사는 사전에 학생해양탐구학습장을 답사한 후 해양탐구학습자료집을 참고로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문의 _ 학생해양탐구수련원 (937-5628), 해양탐구학습장 (880-0796)



여성전자현악4중주 벨라트릭스



클래식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며 음악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여성전자현악4중주단 벨라트릭스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정통 클래식 곡을 일반 대중들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일렉트릭의 강렬한 비트와 사운드를 바탕으로 새롭고 세련된 연주, 흥겹고 자유로운 시각적 연출을 무대에 펼친다. 이번 공연에서는 Summer Storm, Hungarian Dance No. 5, Symphony From the New World 외 10여곡을 연주한다.

일시 _ 8월 19일 오후 2시 · 5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회관 대공연장
티켓 _ 7천원
문의 _ 1588-2341

우광혁 교수의 '2005 세계악기여행'



악회가 끝나면 관객들은 전 세계를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일시 · 장소 _
 8월 12일 오후 3시 · 6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
 8월 20일 오후 4시 ·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일반 10,000 / 학생 7,000원
문의 _ 1588-2341

청소년을 위한 클라리넷 음악여행



1992년 인천지역의 클라리넷 전공자로 구성돼 창단한 인천클라리넷앙상블은 현재 14명의 단원이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청소년들의 이해를 높이고 클라리넷의 다양한 음색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음악회가 될 것이다.

일시 _ 8월 17일 오후 2시 · 4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7천원
문의 _ 011-225-8477

스피릿앙상블의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I Love Classic!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하고 있는 스피릿앙상블이 헨델의 바로크 모음곡, 푸치니 오페라 'La Boheme' 등 클래식은 물론 멕시코 민요메들리, 비틀즈 모음곡 등 듣기 편한 곡을 명쾌하고 친절한 해설과 함께 힘차고 화려한 금관앙상블, 감미로운 피아노 솔로, 소프라노와 테너의 아름다운 솔로와 이중창 등으로 들려준다.

일시 _ 8월 6일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티켓 _ S석 10,000원 / A석 7,000원
문의 _ 스피릿앙상블 (016-340-4796)



가족뮤지컬 해님 달님



옛날에 할머니가 등잔불 아래서 들려주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상들의 생활, 생각,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꿈을 키웠다. 동화 속에 나오는 착한 오누이와 나쁜 호랑이를 비교하여 권선징악을

일깨우고 소중한 교훈을 주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는 가족뮤지컬이다.

일시 · 장소 _
 한중문화원 (인천역 앞) 8월 12일(금) ~ 13일(토)
 12일(금) 오전 10시 20분 · 11시 20분, 오후 4시
 13일(토) 오전 10시 40분, 오후 2시 · 4시
 인천여성의 광장 (동춘동) 8월 16일(화) ~ 17일(수)
 16일(화) 오후 2시 · 4시
 17일(수) 오전 10시 20분 · 11시 20분, 오후 4시
티켓 _ 12,000원 (할인 8,000원) / 단체 5,000원
문의 _ 극단 꼬마세상 (572-4281)

오리엔탱고(OrienTango)와 떠나는 탱고여행



한국 출신의 아르헨티나 이민자들로 구성된 듀오 오리엔탱고의 음악은 전통적인 탱고음악의 계승 이면서도 변종이다. 반도네온 악기음이 반드시 들어가고 4분의 2 박자의 딱딱 끊어지는 리듬을 고집하는 전통 탱고음악 대신 좀더 유연하고 신비스런 월드뮤직풍의 탱고 음악을 시도한다. 클래식을 전공한 성경선(바이올린)과 정진희(피아노) 두

사람이 들려주는 음악은 탱고를 연주한다는 과도한 자의식에서 자유로워 보인다. 그저 애절함과 열정, 흥겨움이 오라가락하는 탱고의 매력을 물 흐르듯 그리고 과장하지 않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연주회이다.

일시 _ 8월 12일(금) 오후 7시
장소 _ 부평문화사랑방(갈산동)
티켓 _ 성인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의 _ 부평문화사랑방 (505-5995)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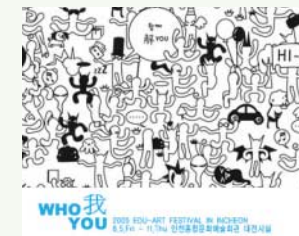
하와이 아이비 장학재단 초청 최병관 사진전

자연광만을 고집하며 사라져가는 자연과 동물들 속에서 오랜 세월 삶의 이야기들을 다양하면서 회화적인 감성으로 사진에 담아오고 있는 인천작가 최병관. 그는 특히 비무장지대 사진가로 국내외에 알려진 인물이다.

하와이 아이비장학재단 초청으로 8월30일부터 9월23일까지 하와이미술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초대 개인 사진전과 함께 97쪽의 영문, 한글판 사진집도 출간된다. 이번 전시의 사진들은 비무장지대라는 지형적 고정관념에서 탈피,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사진들이 몽글하게 내면을 자극한다. 또한 절제된 이야기들도 엮어나간 내용들은 사진의 특성을 가장 절묘하게 묘사한 극치의 시각언어이다.



후아유 Who我you



여름방학 기간 중 공교육 담당자인 미술교사와 미술 활동 주제, 지역의 문화공간과 단체들이 연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창작의 주체가 되게 하는 기획으로 2003년 '이것도 미술이다', 2004년 '미술관습격사

건'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동시대를 살아가며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아야 할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보는 기회와 장(場) 그리고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오늘의 미술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예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스페이스 '빔'과 인천미술교육연구모임 '빅울'이 함께 기획했다.

일시 _ 8월 5일(금) ~ 11일(목)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문의 _ 에듀아트페스티벌운영위원회 (422-8630)
<http://www.spacebeam.net>

김형석 개인전
 5일~11일 갤러리 진
2005 에듀아트페스티벌
 5일~1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7회 그림벚전
 5일~1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제32회 인천사생회전
 5일~1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25회 인천수채화협회회원전
 5일~1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 · 소전시실
예술회전시회
 5일~1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제9회 안성용 개인전
 5일~1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청소년을 위한 열린미술아카데미
 8일~19일 연수갤러리
우현-한국미학의 선구자전
 12일~18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김남훈전
 16일~31일 스페이스 빔
최수동 개인전
 19일~25일 갤러리 진
인천시립박물관 특별기획전
 19일~3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8회 빛깔전(홍진숙)
 19일~25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인천-제주 청년작가 교류전
 20일~26일 연수갤러리
자연과의 대화 이케다 다이쿠시 사진전
 20일~3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 · 중앙전시실
인천사생회 중국기행전
 26일~9월1일 갤러리 진
새빛 정기회원 사진전
 27일~3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연수구 미술협회 정기전
 27일~9월2일 연수갤러리

음력 7월 백중사리 때면 화수부두의 물이 넘쳐 선박의 출입을 신고하는 파출소의 벽이 파도로 철썩거린다. 오랜만에 풍요로운 들물이 노인들을 반긴다. 도시속에 고립되어 있는 섬과 같은 곳- 화수부두. 한때는 흥청망청 호황을 누리던 이곳이 적막감에 휩싸인지 오래다. 어선들은 거의 떠나가 버리고 100여 가구의 주민들이 사는 곳. 아침 저녁으로 부근 공장의 출퇴근 차들만이 빈 허공을 가른다. 단순한 호기심과 바다, 어선을 소재로 사진기를 들고 이곳을 드나들기 시작한지 5년여, 사진그룹 IMAGO는 지난해 8월 28일, 29일 양일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화수부두 현장에서 그네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사진을 건물의 담벼락과 남아있는 창문에 설치하여 보여주었다. 그들의 삶을 반듯하게 네모진 갤러리에 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사진그룹 IMAGO는 그동안 작업 결과를 토대로 작년말 반상회를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올해 연속기획으로 2005 『들물-화수부두의』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다. 그들이 사는 집의 벽에 그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시하며 실험적 현장전시의 일환으로 주민과 공동작업 형태의 새로운 예술의 경향을 보여주는 행위를 표현한다. 이를 위해 담당된 멤버는 각각 2~3명의 주민과 같이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공연은 거리와 골목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참여형의 공연예술을 보여준다.



8월 20일(토) ~ 23일(화) / 동구 화수부두 일대

| 세부 일정 |

8월 20일(토) / 오프닝 오후 5시)

사진전 전시 / 노재철, 박이창식, 오도의 퍼포먼스 /
문화마을 들소리의 타오공연 /
극단 십년후의 삼신할머니와 일곱아이들 뮤지컬

8월 21일(일)

사진전 전시 / 실험예술가 김백기와 부토가 서승아의 공연 /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영화의 주민을 위한 메이크업 /
전경애 무용단의 한국무용

8월 22일(월)

사진전 전시 / 신영철의 퍼포먼스 / 국악인 안선균의 창 공연 /
유철민의 저글링공연 / 이경열의 마임

8월 23일(화)

사진전 전시 / 검무가 장효선의 한풀이 칼춤 /
멀티프리젠테이션 상영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은 일제 침략기부터 해방기까지 한민족의 끈질긴 생존과 투쟁, 이민사를 다룬 민족의 대서사시다. 전체 4부 12권으로 완간되어 4백여만 명의 독자들에게 읽힌 작품으로 민중들의 행위가 역사의 진행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역사적 진실을 일궈내는가 자세히 보여준다. <아리랑>은 일제시대의 생활상뿐만 아니라 일제의 폭압에 맞선 우리 민족의 저항과 투쟁과 승리의 역사를 부각시키고 있어 민족적 긍지와 자긍심, 자존심을 회복케 하는 역작이다. <아리랑>의 가치는 한국민족의 고통과 절망뿐만 아니라 민중의 토속적이고 순수한 쾌활함까지 보여준다는 데 있다. 아울러 기득권 세력들의 옳지 못한 타협과 망각, 그 정치적 책임에 대해 끈질긴 추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극 <아리랑>은 식민지 시대를 겪은 역사 인식으로 탐구한 조정래의 대하소설을 무대화한 대작으로, 김제 출신의 인물들이 군산, 하와이, 동경, 만주, 블라디보스톡 등지로 옮겨서 40여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작가 엄태경이 각색한 공연대본 <아리랑>은 무대공연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압축으로 원작의 핵심을 다루면서도 방대하고 장엄한 구성과 진행을 그대로 살려냈다. 특히, 원작에서 보여준 호남 사투리가 잘 반영된 등장인물들의 대사는 당시 시대상황과 토속적인 작품의 맛을 한층 더해준다. 인천시립극단은 극단 전 단원의 출연과 객원연기자를 초빙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기하고, 작품성을 갖춘 대작으로 공연수준을 한 차원 높인다.



일시 _ 8월 13일(토) ~ 21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공휴일 · 토 · 일요일 오후 4시

장소 _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학생단체 3,000원





Incheon & Arts는 우리시
가 주최해 마에스트로 정명
훈과 함께 기획하여 만든 새
로운 형식의 국제 예술제다.
마에스트로 정명훈, 지휘자
아릴 레머라이트, 지휘자 번
디트 운그랑시, 그리고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 수석 연주
자들이 참여하는 예술과 음
악교육의 축제이다.

APO 아카데미 (Asia Philharmonic Orchestra Academy)

오케스트라 아카데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오케스트라 수석 연주자들과 함께 하는 파트별 레슨, 실내 악 레슨, 그리고 리허설과 공연 참여 등 오케스트라 연습 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아시아 의 재능 있는 음악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오케스트라 훈련과 음악코치, 그리고 풍부한 공연 기회를 제 공하며 만 29세 이하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지휘 워크샵 (Conducting Workshop)

지휘 워크샵은 소수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젊은 지휘자들에게 비경쟁적이면서도 전문적이며 실제적 인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지휘 훈련 과정이다. 지휘 워크샵의 학과는 지휘 기술, 연출, Score Study, 분석, 리허설 기술과 연주자와 대화법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초청 지휘자가 될 기회를 주어 직접 오케스트라와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15~20분의 오케스트라 수업을 진 행한 후 교수진으로부터 피드백과 평가를 받게 된다.

아카데미 콘서트 (8월 12일 ~ 13일)

IPO 아카데미 콘서트 : 8월 12일(금)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인천 & 아츠’ 참가자와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의 무대
APO 아카데미 콘서트 : 8월 13일(토) 오후 7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정명훈 지휘의 아시아필하모닉의 무대

관람료 _ 초대 및 무료 (8월 5일부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터넷홈페이지 선착순 1000명 예약)
문의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020~2)

시민문화프로그램 (시민음악회)

오페라 갈라 콘서트 / 8월 25일(목)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오후 7시
바이올리스트 정경화 초청연주회 / 9월 4일(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오후 7시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내한공연 / 11월 13일(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오후 7시

2005 인천 & 아츠 8월 시민 음악회



오페라 갈라 콘서트 <Opera Gala Concert>

한국을 빛낸 유럽 오페라단 주역가수 초청 콘서트

현재 최고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며 세계 유수 성악 콩쿨대회와 우승컵을 따내고 각 국 오페라단의 주역가수로 활동하면서 세계 매스컴과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는 이들의 무대가 8월25 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제목만 들어도 벌써부터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들이 한국 성악을 대 표할 열정적인 젊은 차세대 성악가들의 소리로 들려온다. 한여름 밤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청량제 와도 같은 아리아의 향연. 그들이 전해줄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인천에 울려 퍼진다.

일시 _ 8월 25일(목) 오후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5만원, S석-3만원, A석-2만원 (회관 유료회원 및 학생 30%할인)
출연 _ 소프라노 김혜진, 박은주 / 테너 김우경 / 바리톤 한명원 / 베이스 손혜수
연주 _ 지휘 : 번디트 운그랑시 / 오케스트라 : 인천시립교향악단
문의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020~2, <http://art.incheon.go.kr>)

일	토	금	목	수	화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27	28	29
30	31	9월 1	2	3	4	5

※ 공연 및 전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조선의 녀에 영혼 바친 고독한 선구자



인천 용리(현재의 중구 용동)에서 태어난 우현(又玄) 고유섭은 미학과 미술사라는 학문이 생소하던 시절, 일찍이 우리의 미와 우리 미술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미학을 바탕으로 미술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사가이다.

미학의 물줄기 열다

고유섭은 일찍이 양부모가 이별해 어린 시절을 주로 조부모 밑에서 성장하였다. 고등교육을 받은 아버지 고주연(1882~?)과 의과를 나와 인천에서 의사로 활동한 셋째 삼촌 주철을 비롯한 삼촌들의 영향으로 어린 고유섭은 학문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별, 그리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고유섭은 점차 말이 없는 의기소침한 소년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3·1운동 때에는 태극기를 만들어 동네아이들에게 돌리고 인천 용동 일대를 만세를 부르며 돌다가 붙잡혀 3일간 구류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일화에서는 강한 성격의 일면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외로움과 우울함을 시·시조·수필 등의 문학작품으로 표출하였으며 때로는 어디론가 홀로 떠나 스케치를 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문학청년으로 변해갔다.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고유섭은 경성제국대학 예과과정에 입학하게 된다.

가정적인 우울함과 내성적인 면을 문학으로 표현하였던 고유섭은 학부과정에 들어가면서 문학에 대한 열정을 학문적인 관심으로 바꾸게 되었다. 그는 우리의 미에 대하여 연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우리나라 최초로 철학과에서 미술사와 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되었다. 이후 경성제국대학에서 미학을 전공한 사람은 광복 때까지 그가 유일하였다.

이렇게 유일한 미술사·미학의 전공학생이었던 고유섭은 1930년 졸업과 동시에 연구실의 조교로 남아있게 되었다. 1929년 12월 5일자 그의 일기를 보면, ‘조수 1년 안에 서양미술사를 하나 쓰고 2년 안에 경주 불국사연구와 불교미술사를 연구하자’라고 다짐한 내용이 보인다.

맨걸음으로 전국 누비다

1934년 고유섭은 오랫동안 공석인 채로 있었던 개성부립박물관의 관장으로 임명되었다. 개성으로 자리를 옮긴 고유섭은 조수시절부터 착실히 다져온 미술사에 대한 학문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는 개성을 비롯한 전국의 각 지역을 답사하면서 우리 고대 미술의 진상을 규명하고 미술사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교시절부터 착수한 석탑조사 외에 회화사의 문헌수집, 고려도자의 연구 등 점차 연구의 범위도 넓혀갔다. 1936년부터는 이화여자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에서 미술사 강의를 하기도 한 그는 1941년 발간된 ‘춘추’ 7월호에 낸 ‘조선 고대미술의 특색과 전승문제’라는 논문에서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 ‘비정제성’, ‘무관심성’, ‘구수한 큰 맛’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동원해 한국적 미의식의 탐구를 설명했다.

도시락을 허리춤에 달고 흰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전국의 유적지를 맨 걸음으로 다니거나 먼지나는 길을 달구지를 타고 조선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던 고유섭은 1940년 초 건강에 위기를 맞게 되었다. 당시의 지식인으로서 울분과 고통을 간간이 술로 달래었던 고유섭은 1940년 과로로 쓰러졌고 이후 그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어 갔다.

고유섭은 어린시절부터의 꿈이었던 한국미술사에 대한 개설서를 쓰는 문제와 공민왕 소재의 문학작품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필생의 과제로 남긴 채, 간경화증으로 1944년 6월 26일 40세를 일기로 개성 수철동 묘지에 묻히고 말았다.

글 _ 유동현 (편집위원 · batubatu@incheon.go.kr)

통학시절 인천문화운동에 씨 뿌려

인천창영초교를 졸업한 고유섭은 서울 보성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면서 곽상훈, 전중혁, 조진만, 고일 등이 활약하던 경인선통학생친목회에 가입한다. 당시 인천에는 인천공립보통학교와 박문학교, 영화학교 등에서 매년 200~4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졸업했는데, 중등학교는 인천남상업학교와 인천북상업학교, 인천고등여학교가 고작이라 많은 학생들이 부득이 서울로 유학할 수밖에 없었다. 고유섭은 인천~서울간을 통학하면서 ‘경인팔경’ 등 고향 인천에 대한 애향심이 물씬 풍기는 시와 수필을 남기며 인천문화운동에 씨를 뿌리기도 했다. 경인선통학생친목회 회원들은 이후 인천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제물포청년회나 칠면구락부, 인천청년연맹 등 여러 단체를 만들거나 관여하게 된다.

인천에는 고유섭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가 세상을 떠난 30주기를 기념하여 1974년 문무대왕 해중릉이 바라다 보이는 경북 감포와 고향인 인천의 자유공원에 각각 기념비와 추모비가 세워졌다. 자유공원 추모비는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옮겨졌다. 1992년 9월 인천 새얼문화재단은 제 1회 새얼문화 대상 수상자로 우현을 선정하고 인천시립박물관 마당에 선생의 동상을 세워 그 뜻을 기리고 있다. 매년 우현학술제가 민예총 인천지회 주최로 열린다.

1905년 인천 용리 출생
1925년 보성고등보통학교 졸업
1927년 경성제국대학 철학과에서
미학과 미술사 전공
1930년 경성제국대학 연구실 조수
1931년 「동아일보」에 ‘협전관평’으로 등단
1933년 경성부립박물관 관장
1936년 이화여자전문학교 및
연희전문학교 출강
1944년 병사(病死)

〈우현 관련 도서〉
고려청자 (1954, 을유문화사)
한국미술사급미학논고 (1963, 통문관)
한국미술문화사논총 (1966, 통문관)
한국탑파의 연구 (1975, 동화출판공사)
조선화론집전 (1976, 경인문화사)
우리의 미술과 공예 (1977, 열화당)
한국의 미 산책 (1977, 동서문화사)
고유섭 전집 (1993, 통문관)



우현, 그가 우리 곁에 돌아오다

인천문화재단은 광복 60주년과 인천에서 태어난 한국미술사학자 우현 고유섭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학술심포지엄과 그의 삶과 저술활동을 되새겨 보는 전시기획을 마련했다.

국제학술심포지엄 ‘근대 미학의 기원...’

우현 고유섭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은 ‘근대 미학의 기원-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8월 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우리 문화예술의 근간이 되는 한국미에 대한 고찰을 우현의 미학 정신을 중심으로 국내외 미학 연구의 석학들이 주제발표를 한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축사를 하고, 중국인민대학 장파 교수(중국근대 미학의 발견과 형성과정), 국제미학회장을 역임한 동경대 명예교수 사사키 켄이치(일본근대 미학의 발견과 형성과정), 그리고 일본의 독도 양심으로 화제를 일으켰던 쓰다쥬쿠 대학 다카사키 소지 교수(아사카와 다쿠미와 야나기 무네키시가 바라본 한국의 미학)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밖에 계명대 김임수 교수(우현 고유섭의 미학 체계)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인범 교수(우현 고유섭 미학 해석에 대한 고찰) 등도 주제발표를 한다.

전시기획 ‘우현 – 한국미학의 선구자’

국제학술 심포지엄과 더불어 일반인들이 우현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전시회가 8월 12일(금)부터 18일(목)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린다. 우현의 삶과 연구를 재조명하고 인천의 문화적 이미지를 홍보하는 이번 전시회는 총 6개의 존으로 나누어 열린다.

Zone 1. 우현의 삶 (고독한 학자의 길)

우현의 가정배경과 가계도, 그리고 우현이 살다간 인생과 삶의 주변에 대한 개요적 서술을 중심으로 전시물을 구성함으로써 그의 학문적 배경의 연관성을 유추케 한다. 고유섭의 스케치, 펜화, 고유섭의 가족관계를 밝혀주는 각종 사진이 소개된다.

Zone 2. 우현과 인천 (근대의 관문에 서서)

인천의 지리적,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나게 된 우현의 젊은 시절을 서술하면서 창영학교와 부두, 기차역 등 인천의 근대모습을 연대별로 현장을 생생히 느끼게 한다.

Zone 3. 우현과 근대학문 (미술사와 미학)

경성제국대학 미학전공 1호 졸업생인 우현의 학문세계가 틀어 잡혀져 가던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전시한다. 한국의 미를 주제로 열정을 불살랐던 근대 미술사의 태두로서 우현의 학문세계를 조명하며 보성고보 시절, 경성제대 법문학부 시절, 미학연구소 연구원 시절 등 근대적 학문 체계 아래서 그의 학문이 발전되어 가던 생생한 현장을 되돌아보는 장으로 구성한다.

Zone 4. 우현과 개성 (인천과 개성의 가교 – 우현)

개성박물관 관장 시절은 우현이 가장 왕성한 저술활동을 벌였던 시기이다. 당시의 개성박물관의 모습을 생생한 사진자료로 보여주며 아울러 <송도고적> 등 우현의 대표 저작 원고를 통해 송도의 중요한 고적들에 대한 우현의 이해를 엿보고자 한다.

Zone 5. 우현의 저술 (선구자)

짧은 인생동안 왕성한 저술활동을 펼쳤음에도 아직까지 우현의 모든 저술이 출판되지 않은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미 간행된 저서들과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소개되는 우현의 미간행 저서 원본들을 살펴보는 전시의 장이다. 또한 간행 및 미간행 원고의 원본과 초고 등을 통합, 전시하여 생생한 학문적 업적의 창조과정을 실제 피부로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조선탐파의 연구>, <전별의 병>, <송도고적>, <조선건축미술사초고>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Zone 6. 우리 미의 미래 (우정의 동아시아를 향하여)

한국적 아름다움의 분류에 대한 이해와 미학, 미술사학의 미래, 총체적 문화 콘텐츠로서 우리의 미가 갖는 의의에 대해 되짚어 보고 우리의 미를 더욱 바르고 깊게 이어 가야 할 우리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전시의 장이다.



굿인천 굿뉴스

인천기업사랑운동 본격화



‘인천기업사랑 협의회’가 지난 7월 13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인천기업사랑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협의회는 기업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확산시키는 등 기업사랑 운동을 이끌어 가게 된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경제관련기관 및 단체장들과 시민단체, 언론사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가 구성된 배경 및 운영계획을 보고받은 후 현판식을 가졌다.

문의 _ 시 기업지원과 (440-2874)

인천항의 새로운 비전, 인천항만공사 출범



인천항만공사가 지난 7월 15일 오전 중구 신흥동 정석빌딩에서 현판식을 갖춘 후, 라다마 송도호텔

에서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기념행사에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안상수 시장, 박승숙 시의회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공사 창립을 축하했다.

인천항만공사 서정호 사장은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서 인천항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발표를 통해 외항시대 개막으로 인천항 제2의 개항, 사람·화물·정보가 모이는 항만, 환황해권 물류중심 네트워크 구축, 국제수준의 레저포트 등 모두 4가지의 전략을 제시했다.

문의 _ 시 항만공항지원과 (440-3372)

여성주간 기념 ‘인천여성대회’



제7회 인천여성대회가 여성주년을 맞아 지난 7월 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여성연대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

번 기념식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에 힘쓴 이인현씨, 정문자씨, 최병란씨가 제2회 인천여성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야외행사로 여성단체직원들이 시민을 위해 그동안 펼쳐왔던 각종 봉사활동과 사회참여활동을 엿볼 수 있는 전시관이 마련됐다.

문의 _ 시 여성정책과 (440-2712)

남동구~부평구 잇는 ‘만월산터널’ 개통



남동구 간석동과 부평구 부평동을 연결하는 ‘만월산터널’이 지난 7월 4일 개통됐다. 2001년 12월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착

공된 ‘만월산터널’ 축조공사는 총연장 2,871m 중 1.5km의 편도 3차 쌍굴터널로 건설됐다. 이번 개통식은 안상수 시장, 박승숙 시의회의장, 국회의원, 주요기관장, 사회단체장, 언론사,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만월산터널’ 개통으로 인해 남동구와 부평구 도심지역간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시간과 거리 단축은 물론, 물류체계 개선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시내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행료는 소형 700원, 대형 1,000원이다.

문의 _ 시 도로과 (440-3794)

제2회 LOVE ACTION 사랑나누기 바자회

우리시와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난 7월 9일 구월동 중앙공원에서 ‘제2회 LOVE ACTION 사랑나누기 바자회’를 열고 판매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이 행사는 인천시민과 청소년들로부터 학용품, 의류, 기타 생활용품 등을 기증받아 판매하는 ‘나눔과 순환운동’의 봉사활동체험으로 청소년들에게 이웃사랑의 정신과 절약정신을 몸소 느끼고 공동체 정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 초·중·고등학교의 YOUTH 학부모 봉사단 및 지도교사, 청소년 등 600여명이 참여해 모은 수익금 2,764,100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문의 _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675)

맑은 물 흐르는 자연형 하천 만들기



우리시는 인천의 하천을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지난 7월13일 ‘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해 워크숍을

열었다. 자연형 하천 조성에 대해 논의하고 네트워크별 활동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워크숍에는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분야 관계자를 포함해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촌천, 장수천, 굴포천, 송기천 등 네트워크별 활동사례를 발표하고 청계천 복원사업 담당관의 하천살리기 초청강연도 이어졌다.

문의 _ 시 물관리과 (440-1518)

경인운하~강화초지대교 간 도로확장

2004년 11월에 착공됐던 경인운하~초지대교간 도로확장 사업이 3개월 단축된 지난 6월30일에 조기 개통됐다. 이번 개통으로 강화군과 인천도심과의 소요시간이 30분정도 단축되었다. 총연장 11.3km의 2차로인 도로확장은 서곶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완화하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도로과 (440-3793)

보니엠 인천홍보대사로 위촉



세계적인 4인조 혼성그룹 보니엠(Boney M)이 지난 7월 15일 ‘인천홍보대사’로 선정돼 안상수 시장으

로부터 위촉패를 전달받았다. 레게풍의 디스코 댄스곡과 발라드로 70~80년대 한국에서 최고 인기를 끌었던 보니엠은 앞으로 전세계를 돌며 콘서트를 여는 동안 인천을 위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보니엠은 같은 날 인천 시립실내체육관에서 ‘그룹결성 30주년’ 기념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4012)

천명수 정무부시장 취임



제7대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천명수 전 경기농지재단 대표이사 가 임명돼 지난 7월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천명수 신임 정무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쌓은 행정경험을 살려 고향 인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2004년 3월에 취임해 1년 4개월 동안 인천이 동북아시아의 경제중심도시로서 위상을 세우는데 일조해 온 김창섭 정무부시장은 지난 7월14일에 퇴임식을 갖고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인천시청을 떠났다.

〈프로필〉

인천중, 제물포고, 육사 졸업 / 가평군수, 포천군수 / 내부부 조사담당관 /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 부천·안산·수원시 부시장 / 경기도 행정2부지사 / 경기농지재단 대표이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우리는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5일까지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동사무소, 파출소 등에서 장애인을 위해 사용된 시설면적이 법률에 따라 알맞게 활용됐는지 조사했다. 또한 철도, 지하철 등의 역사에 장애인 주차구역, 경사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뤄졌다. 우리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잘못 설치돼 있거나 설치되지 않은 해당 기관에 대해 올바른 설치를 유도하고 시정요구를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문의 _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663)

외신·경제기자 초청설명회



우리는 지난 7월 15일 인천 라마다송도 호텔에서 외신·경제기자들을 대상으로 초청 설명회를 열었다. 외신기자와

경제·부동산 전문 기자 등 46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인천이 동북아 관문도시임을 국내외에 알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상수 시장은 설명회를 통해 Buy Incheon프로젝트의 대대적인 전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전 세계적인 투자 유치상황을 설명해 관심을 유도했다. 또한 안시장은 남북교류사업과 9월에 있을 제16회 아시아 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이번 초청 일정에는 설명회와 함께 인천의 비전을 공감할 수 있는 송도국제도시 시찰과 강화도 현장투어 등 시정현장 견학이 포함됐다.

문의 _ 시 공보관실 (440-2053)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업무혁신계획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일하는 방식 혁신계획’을 수립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간관리

강화를 위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을 집중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지침했다. 또한 개인별 주간목표 관리제를 추진하고 수평적 협력 강화를 위해 금요 캔미팅(Can Meeting)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별로는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휴일을 이용한 자격증 취득, 어학공부 등 자기계발에 힘쓰고 분야별 연구회, 학습동아리 등을 구성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문의 _ 시 혁신분권담당관실 (440-3703)

2006년도 예산정책 종합 토론회 개최



우리는 200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정책 시민종합토론회’를 7월 14일 오후2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

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06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예산의 실질적 수요자인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와 적절한 예산배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정병일 시 기획관리실장과 최병덕 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이인석 인천발전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김필우 시의원을 비롯한 8명의 패널 토론자들과 일반참석자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분야별 토론회와 종합토론회에서 모아진 다양한 의견들을 중점 관리하여 2006년도 예산편성과 시정업무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예산담당관 (440-2192)

인천의료원 개원20주년 ‘사랑의 음악회’

인천의료원은 7월 14일 공사개원 20주년을 기념해 환자위안 이벤트인 ‘사랑의 음악회’를 의료원 현관로비에 서 열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의료원 그룹사운드인 ‘가시’ 팀과 ‘엄마 목소리 중창단’, ‘소리새’ 등의 공연이 펼쳐졌고 환자와 보호자들의 즉석 참가 노래자랑도 이어졌다.

문의 _ 인천의료원 (440-6772)

의정소식

시의회 개원 14주년 기념행사 개최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 8일 의회 중앙홀에서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제1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박승숙 의장을 비롯한 현 시의원들과 안상수 시장, 이기상·강부일·이영환·신경철 전 의장, 이우근 인천지방법원장, 정동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각종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행사를 가졌다. 박승숙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개발과 대안제시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 민주적인 의회, 보다 수준 높은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제4대 2기 운영성과

제4대 2기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지난 7월, 인천광역시의회는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활동, 올바른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결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다했다. 뿐만 아니라 민생현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4대 2기 운영성과를 살펴본다.

-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과 안전 처리

제126회 임시회에서부터 제139회 1차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14회 129일간의 회기운영을 통해 161건의 의안을 접수해 154건을 처리했다. 인천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지원조례 중 일부 개정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을 관내 전 도서로 확대 지원했다. 또한 여객운임 재정지원금을 30%에서 50%로 상향함으로써 도서지역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인 의원발의 입법활동을 전개해 왔다.

- 집행기관의 통제 감시기능 강화와 정책대안 제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117건, 처리요구 74건, 건의 151건 등 총 342건을 지적해 집행기관의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시책을 시정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우리시와 교육청의 시정질문 247건을 통해 시책사업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지방행정 감시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 적정집행 감시

2005년 4월 GM대우자동차를 방문해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구도심권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해 2005년도 과다계상분 110억 정도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 특위활동을 통한 의정활동

지역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과 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다. 도심의 주요기능이 신도시로 이전되면서 소외된 구도심권의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해 ‘구도심권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집행부에 ‘도시균형건설국’을 만들도록 요청했다. 또한 ‘의회 남북교류촉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남북교류증강기 종합추진계획 수립, 개성공단 입주기업 행·재정적 지원시책, 특히 남북교류기금이 조성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택시 단말기설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등 상임위 활동으로 부족한 부분을 특위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 복지증진과 민생현안 해결을 통한 봉사의정 실현

2005년 2월 장애인 복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인 접근권에 초점을 맞춘 조례 제정을 검토했다. 결식아동 부실도시락 파문과 관련해 관내 결식아동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역주민의 민생현안 사항인 진정(94건 접수 89건 종결)과 청원(13건 접수 채택 7건)을 확인 시정 조치하고, 또한 의회 청사내에 민원상담실을 새로 설치하는 등 봉사의정을 펼쳤다.

- 국제교류와 동북아 거점도시 위상 제고

‘인천광역시공공기관 유치에 위한 건의문’ 채택과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에 따른 성명서’ 발표 등 인천시민의 권익을 위해 활동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영유권 침탈행위에 맞서 ‘독도의 날 제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내는 등 자국영토 수호에 대한 분명한 의지 표명을 했다. 대련시 인민대회 상무위원회와의 간담회 등 동북아 거점도시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며, 시 집행부와 함께 평양을 방문해 남북화합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은 물론 남북 경제교류에 힘썼다.

-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재도약 기틀 마련

의회 스스로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2005년 7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으며, 의회사무처 인사시 직원모집을 의장추천제에서 공개모집추천제로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했다.

자료제공 _ 시의회 공보팀 (440-6054)



중구 내 집 주차장도 만들고 지원도 받고

중구는 담장이나 이웃간 경계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민에게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골목길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한 이 사업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경우, 내 집 주차장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320만원까지 보조해 줄 계획이다.

문의 _ 중구청 (760-7557)

동구 ‘맞춤형 도로명 안내지도’ 무료 제공

동구는 지난 7월 4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부동산중개업소와 소규모 배달업체 등에게 ‘맞춤형 도로명 안내지도’를 무료로 제공한다. 맞춤형 지도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주요지물, 지번 등 업소주변 정보들의 내용과 크기를 다양화해서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지도를 원하는 업체나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가지고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_ 동구 (770-6374)

남구 노상주차장 유료화

남구는 장기주차장 방지하고 주차회전율을 높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3개소의 노상주차장을 이번달 1일부터 유료화했다. 유료화 되는 주차장은 송의1동 노인복지회관 앞과 용현5동 간선도로변의 노상주차장(30분당 400원)을 포함해, 용현시장 부근 개구리주차장과 학익2동의 학익4거리(GS마트)에서 국민은행 앞 간선도로변까지(30분당 600원) 등이 지정됐다. 4월~10월까지의 하절기는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11월~3월까지의 동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유료로 운영된다.

문의 _ 남구 (880-4514)

남동구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CCTV설치

남동구는 만수동 창대시장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11곳에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새로 설치해 이달부터 단속에 나선다. 구월1동 우리은행 앞 등 4곳에 고정식 CCTV를 설치했으며, 차량탐재 CCTV 1대가 지역을 돌아다니며 단속활동에 나선다. 무인단속시스템이 새로 설치된 장소는 만수동 창대시장, 만수3지구 국민은행, 간석동 올리브백화점 등 모두 11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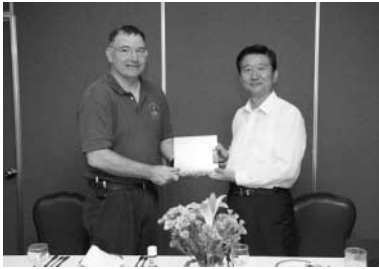
문의 _ 남동구 (453-2760)

연수구 정신보건센터 개소

연수구 보건소는 지난 7월 13일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 센터 재활프로그램은 활력징후 측정, 무용치료, 인사 및 차 마시기, 집단치료 등이 이뤄지게 된다. 대상자는 관내주민으로서 재활효과가 기대되는 만성정신질환자이며 인원은 15명 내외다.

문의 _ 연수구보건소 (810-7844)

부평구 한미 친선협의회 개최



를 개최했다. 이날 한미친선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인 티모시 케이 맥널티와 박윤배 부평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각종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구의 발전과 우호증진 도모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문의 _ 부평구 (509-6120)

계양구 ‘청렴 계약제’ 운영

계양구가 지난 7월부터 맑고 깨끗한 행정구현을 위해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주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청렴 계약제’를 도입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입찰 계약과 이행 과정에서 부패의 근원인 담합 입찰, 뇌물 제공 등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참여 업체와 행정기관 양 당사자가 상호 신뢰를 서약하는 제도이다. 공사비(도급액)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조경·전기·통신·기계 등 기타분야 1천만원 이상 발주공사 등을 업체와 계약할 때 청렴계약제가 적용된다.

문의 _ 계양구 (450-5063)

강화군 지역특화카드 발행

강화군은 지난 7월 14일 농협중앙회 비씨카드(주)와 제휴한 지역특화카드 ‘강화사랑 My Home Love카드’를 발행하기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카드 사용에 따른 일정금액을 적립한 후,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기금으로 활용된다. 카드를 발행받은 고객은 장학기금 마련에 기여하게 될 뿐 아니라 연회비 면제는 물론, 가맹점 무이자 할부서비스, 놀이공원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

문의 _ 강화군청 (930-3802)

옹진군 행정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옹진군은 지난 7월 7일 김동기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초청, ‘2005년도 지방행정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교육은 혁신공감대를 조성하고 정부혁신의 기본적인 개념 및 역사적 중요성과 지방화시대 등에 맞는 지방행정혁신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의 자세, 역할 등이 강연됐다.

문의 _ 옹진군청 (880-2022)

부평구가 지난 6월 29일 서울 용산구에서 한국측 19명, 미국측 13명 등 총 3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한미친선협의회’

미국 바이오 관련 12개 업체 투자유치 기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PM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투자가능업체가 상담을 요청한 경우,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제시해 후속협상을 매끄럽게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가능업체를 국내로 초청하거나 또는 현지로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통해 투자성과가 연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활동을 조직적·체계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제도 행자부 수범사례로 선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옥외광고물 제도가 행자부의 수범사례로 선정돼 발표되는 등 국내 광고물시책의 우수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2005년 6월 28일~29일의 2일간에 걸쳐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전국 옥외광고물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열고 옥외광고물 법령교육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옥외광고물제도를 발표토록 했다. 이 연찬회에서 인천경제청은 옥외광고물 면적총량제, 시민자율규정, 도안 등 표시의무제와 지난해 전국을 돌며 수집하여 선정한 Good Design 광고물(제1차), 해외의 아름다운 광고물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광고물의 난립방지 및 아름다운 광고물의 표시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및 타 시도로부터 큰 관심과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인천경제청은 하반기에 해외의 아름다운 광고물 사례를 정리하여 Good Design 광고물(제2차)을 선정해 아름다운 광고물의 표시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 인천시교육청 소식 |

첨단학과에 10억4천만원 지원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여공고, 디자인고 등을 비롯해 첨단학과를 개편하고 신설하는 13개 실업계 고등학교에 첨단실험 및 실습기자재 확충비로 올해 총 10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급변하는 첨단산업의 발달에 따라 실업교육현장에서 내실을 키우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문의 _ 시 교육청 정보실업교육과 (420-8278)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당선



지난 7월 6일 치러진 ‘2005년 인천시 교육감 선거 결선투표’에서 나근형(66) 후보가 총 투표수 4천 226표 가운데 2천650표(63%)를 얻어 민선 4대 인천시교육감에 재선됐다. 나

당선자는 7월 18일 오전, 인천시교육감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감 업무에 들어갔다.

넌 미국 가니? 난 영어마을 간다!

초등학생부터 취업준비생 그리고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영어. 영어를 꼭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배워야할까? 이런 물음에서 우리시 서구가 외국어특구로 지정됐다는 것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서구는 지난해 9월부터 외국어교육특구 지정을 준비한 끝에 지난 4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됐다. 이제 외국인의 비자발급 절차가 완화되고 외국인의 체류 기간 규제가 완화돼 외국인 교원을 자유롭게 임용할 수 있게 됐다.

With | 원어민교사와 영어수업을

외국어 특구가 됨으로써 우선, 외국어 교육사업이 펼쳐진다. 서구의 초·중·고등학교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외국인 교원(강사)이 배치되는 것이다. 서구에 있는 57개 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외국인 교원의 배치를 희망한 34개 학교(초등 23개, 중등 4개, 고교 7개)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한다.

외국인 강사는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아 각 학교에 배치된다. 각 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는 외국인 교원이 각 반의 영어수업을 진행하게 하고 방학 중에는 영어회화 특별반 등을 개설해 외국인 교원을 적극 활용한다.

서구는 외국인 교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시설과 비용 등 교사 1인당 1억원씩 총 3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구가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교육경비지원조례로 인해 외국인 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Play | 영어로 놀자, 영어마을

내년 12월까지 원당동에 있는 창신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영어마을을 조성한다. 영어마을에는 강의실과 체험학습관, 기숙사 등이 들어서 동시에 1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영어마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최준석 교육지원팀장은 “경기도나 기존의 영어마을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영어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환경의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으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효과 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8월중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사이버영어마을이 운영된다. 영어마을에 참가하기 전 선수학습을 하거나 영어마을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과 지역주민을 위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사이트와 콘텐츠를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Stop | 조기유학은 이제 그만, 국제학교 설립

외국유학을 꿈꾸거나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교육 현실을 감안해 서구에 국제학교가 설립된다.

우리 인천에는 국제학교와 유사한 인천외국어고등학교가 부평에 있고 영종도에 인천국제고등학교(가칭)의 건립이 추진 중이다. 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와 청라지구에 외국인 학교의 설립도 예정돼 있다. 여기에 서구에 국제학교가 세워지면 인천시민 모두가 균형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서구에 세워지는 국제학교는 교육청이 설립주체가 되는 공교육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국제학교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공부하는, 인천지역의 국제화에 대비한 국제적 이해와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 학교로서 200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Enjoy | 영어 세계에 빠져보자, 잉글리쉬 스퀘어

영어마을이 다소 부담스럽지만 내 영어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면, 그리고 학원에서 배우는 영어가 2%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일요일 아침, 서곶근린공원에 가볼 일이다.

7월 24일부터 10월 말까지 일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영어광장이 문을 연다. 영어광장은 원어민과 영어회화가 가능한 자원봉사자, 시민이 모여 자유롭게 영어로 토론하고 대화하며 게임을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회화 테이프를 듣고, 한글 자막이 없는 영어만화를 함께 보는 등 다양한 영어프로그램이 운영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영어의 세계에 빠져볼 수 있다.

글 _ 정경애 (편집위원 · happyjka@incheon.go.kr)

영어마을에서 중국어마을까지

우리시는 서구 외국어특구 지정과 별도로 ‘인천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빠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외국어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리시가 조성할 외국어마을은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5박 6일간 숙식하면서 영어권 사회에서의 생활을 그대로 옮겨 놓은 체험 학습장이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외국어마을을 운영할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8월 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2/4 분기 안에 영어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차이나타운을 돌며 생활 중국어를 익히는 중국어 체험마을을 운영한다. 차이나타운의 상인이나 점원, 학생과 주민 등 각 20명씩을 면접을 통해 뽑아 2기에 걸쳐 중국어 무료 강좌를 연다. 강의는 한·중문화관 전문 통역사가 맡고 학습은 차이나타운의 상점과 음식점을 방문해 중국어로 주문하기와 물건사기 등 체험위주로 이뤄진다



왜색 질던 인천도심 해방의 물결 너울너울

1945년 당시 일제가 패망하리라고 믿는 인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조선총독부가 눈과 귀를 철저히 가리고 막았기 때문이었다. 총독부의 나팔수였던 경성방송국이 바깥세상의 소식을 제대로 전할 리 없었고, 매일 신보를 비롯한 기관지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대동아공영권의 당위성'과 '연전연승하는 황군의 소식'만을 보도하고 있었다. 1942년 2월 15일 보도 매체들은 싱가포르 함락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고, 이에 따라 인천부(仁川府) 남녀노소 부민과 학생들은 일제의 강권에 못 이겨 횃불을 치켜들고 한밤중에 시가를 행진하며 승전 축하회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렇듯 항상 '영미귀축(英美鬼畜)'을 물리쳤다는 승전보에만 젖어 있던 부민들에게는 일본이 패망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정오, 경성방송국은 '경천동지와 같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일본왕의 들릴 듯 말 듯한 떨리는 목소리를 전했다. 그 충격은 일거에 세상을 휩쓸어 버리고 간 원자폭탄과도 같았다. 곳곳에서 '항복 패닉 현상'이 일고 있었다.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를 건잡을 수 없는 혼란이 거듭되고 있었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일제의 굴레에서 벗어난 꿈만 같은 현실이었다.



해방 전 왜색 짙은 인천의 도심 모습



8월 17일 시가행진을 하며 만세를 부르고 있는 부민들

'8·15광복'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다. 만주 별판에서 군번도 없이 스러져 간 수많은 광복군의 희생, 국내 외에서 독립운동에 몸을 바친 의사, 열사, 지사를 비롯한 모든 독립 운동가들의 피눈물 나는 분투가 그 원천적 힘이었으나, 일제가 이 땅에서 제 발로 걸어 나가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국에 의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소위 '옥음방송(玉音放送)'에 전율한 것은 한국인만이 아니었다. 식민지 인천에 나와 '내선일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위로는 인천부윤(仁川府尹·지금의 인천 시장 격)과 같은 고급 관리에서부터 아래로는 말단 순사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탈과 만행을 저질렀던 일본인들은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에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경찰은 아직 치안 유지를 핑계로 충기를 소지하고 한국인을 위협했지만, 인천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일본인들은 대문을 걸어 잠근 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만 있었다.

반면, 한국인들은 온통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를 누비고 다녔다. 광복의 기쁨에는 사상과 이념의 벽이 있을 리 없었다. 거리는 태극기와 온갖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로 물결을 이루었다. 부민들은 만세 행렬을 뒤따르거나 문 앞에 나와 박수로 광복의 감격을 나누고 있었다. 만세 행진은 17일, 18일까지 전 시가지에서 펼쳐졌다.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여차하면 유혈극을 빚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천 부민들은 놀라운 자제력을 보여 일본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약탈, 방화하는 일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죄는 미워도 인간은 미워하지 않았던 부민(府民)들의 수준 높은 정신적 자세가 발현되는 순간순간들이었다. 오히려 겁을 집어먹은 것은 일본인들이었다.

이 무렵, 인천에 미군이 상륙한다는 소문이 부중에 파다하게 나돌았다. 일본인들은 2, 3일 안에 미군이 도착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어차피 미군이 도착하면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값비싼 귀금속이며 가재도구 등을 본국으로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일본인들은 평소 안면이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를 헐값에 팔아넘겼고, 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서둘러 현금을 우체국을 통해 본국으로 송금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친일 인사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일본인들에게서 땅문서 등을 일시 보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명의를 넘겨받는 사례가 많았다. 그 중에는 아예 공장 자체를 인수받아 후에 그를 밑바탕으로 해서 가업을

일으킨 예도 비밀비재하였다. 그런가 하면 친일 인사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진 김 모씨는 17일 오후 인천 부운 등 일본인 몇 명과 함께 인천신사(仁川神社)에 모여 소위 ‘신체(神體)’를 비밀에 부친 모처로 옮기는 식을 거행하고 일본 항복에 비분강개(?)한 나머지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그 후 일본인들이 한 일은 식민지 통치의 죄악상이 낱알이 드러날 각종 문서를 태우는 일이었다. 각 관공서는 며칠을 두고 각종 문서를 태우느라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피어올랐다.

9월 8일, 마침내 소문만 무성했던 미군이 인천 앞바다에 나타났다. 팔미도 쪽에서 미군 비행기 편대가 날아와 굉음을 내며 인천 상공을 시위하듯 선회했다. 아직 인천의 치안을 맡고 있던 일경(日警)은 인천부 전역에 통행 금지령을 내렸지만 부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군을 환영하러 부둣가로 나갔다.

그런데 느닷없이 본정(本町·지금의 중구 중앙동) 교차로 부근에서 총성이 들려왔다. 환영 시위대와 일경이 충돌한 것이다. 이때 일경이 쏜 총탄에 인천노동조합 권평근(權平根) 위원장과 이석우 씨 등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 사건은 인천 군정청(軍政廳)에 의해 수습되고, 10일 시민장이 거행됐다.

상인천역(지금의 동인천역) 광장에서 가진 영결 연설에서 한 좌익 인사는 ‘일본 놈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죽이자!’고 해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케하기도 했다. 이어 시가지를 누빈 장례 행렬에는 민족의 불행한 앞날을 예고나 하듯 태극기, 미국기, 소련기, 붉은기가 저마다 하나의 물결을 이루며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빨리 귀국하려고 애를 썼지만 정작 그들이 인천을 떠나기 시작한 것은 그 해 10월 하순경이었다. 일본인들은 재산의 일부라도 건져내려고 발버둥쳤지만, 미 군정청은 어른 50kg짜리 2개, 12세 이하 1개로 화물을 제한하였고, 모든 짐은 조사를 받은 후에야 인천항에 정박 중인 귀국선에 승선할 수 있었다.

악몽 같던 일제의 식민 통치는 그렇게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35년간의 피눈물 나는 압제보다도 더 통분할 일은 일제에 의해 배태된 6·25전쟁을 남북이 서로 피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역사적 사실이다. 광복 60년을 맞으면서도 삭혀지지 않는 것이 그들의 원죄적 죄 값인데, 그들은 오늘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국제적 파렴치를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자행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글·사진제공 _ 조우성(시인·인천시 시사편찬위원)



‘무조건 항복’ 발표 후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에 오르고 있는 일본인들



몇몇 친일인사들과 일본인들이 ‘신체’를 옮기는 의식을 치른 인천신사

yummy yummy | 외국인 이용하기 편리한 음식점

인천은 국제도시이다. 국제공항과 항구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하루가 다르게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음식’은 지역의 문화이자 역사이다. 우리시는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맛 좋고 친절하며 깨끗한 음식점 90군데를 선정했다. 메뉴별로 매달 4군데씩 시리즈로 소개한다. (자료제공 _ 시 보건위생과, 아이디어)

한식 **풍경**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46-5 | TEL : 551-6600

스페셜메뉴 : 소 등심
영 업 시 간 : 오전 11시~오후 12시
찾 아 가 기 : 좌석버스 111번
이용 후 계산초등학교 하차

양식 **코아**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534-1 | TEL : 522-3111

스페셜메뉴 : 스테이크
영 업 시 간 : 오전 12시~오후 11시30분
찾 아 가 기 : 국철, 인천지하철
이용 후 부평역 하차

주식 **자금성**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 43-1 | TEL : 834-3300

스페셜메뉴 : 청요리
영 업 시 간 : 오전 11시~오후 10시
찾 아 가 기 : 일반버스 6번, 46번
이용 후 송도역 삼거리 하차

한식 **미락**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내리 1826-5 | TEL : 937-9998

스페셜메뉴 : 활어회
영 업 시 간 : 오전 9시30분~오후 11시
찾 아 가 기 : 강화 선수선착장에 위치

맑고 맑은 웅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한모금의 시원한 물이 간절한 요즘이다. 깊은 산속 웅달샘, '짙'하고 손끝을 저리게 만드는 샘물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저 만큼 물러난다. 하지만 웅달샘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달'뿐이라. 휴식과 건강이 그곳에 있고 '어울림' 또한 찾을 수 있다. 조용한 산책로, 운동시설, 쉼 곳과 깨끗하고 시원한 약수가 저친 도시인을 기다린다.

종합스포츠센터 '동네 약수터'

부평 백운역 부근 선포산(혹은 함봉산). 이른 아침이면 물을 뜨기보다는 운동을 하러 모여든 사람들로 조그만 운동장이 북적인다. 에어로빅, 기공체조 등 자연을 호흡하며 심신을 '맑고 밝게' 하려는 도시인들이 산곡동 선포약수터의 새벽을 연다. 이곳은 야외공연장과 운동장, 실내배드민턴장, 기본 운동시설 등을 고루 갖춘 종합스포츠센터나 다름없다. 꽤 넓은 터에 조성된 약수터에는 아름드리 벚나무가 빼곡하고 그 사이로 계단식 벤치가 놓여 있다. 야간 조명시설이 있어 무더운 여름밤에는 잠 못 이루는 주민의 안식처가 된다. 약수터까지는 완만한 경사라서 누구라도 무리없이 오를 수 있고 중간 중간 쉼터도 있어 삼림욕에도 제격이다.

서구 석남약수터는 인천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이다. 천마터널 옆에 위치한 이곳은 운동기구와 시설로 배드민턴장과 족구장이 있으며 약수터 옆 계곡으로 지압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계곡 중간에 얇은 여울을 만들어 아이들이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담그며 물장구를 칠 수도 있다. 지역주민의 손길로 너무도 아름답게 가꾸어진 약수터 길도 예술이다. 2개의 약수터로 구성되어 있는 이곳은 약수터 표지가 보이는 곳으로부터 처음 약수터는 약 5분 거리, 둘째 약수터는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다. 약수터 입구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며 노선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부평공원묘지내에 흐르는 개울은 굴포천의 발원지로 그 상류에 칠성·부령 약수터가 있다. 인천에서 가장 길고 유일하게 한강으로 흐르는 굴포천의 발원지라는 의미도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약수터다. 공동묘지이지만 운동과 휴식을 즐기려는 시민이 늘 찾는 이곳은 주변 전체가 공원이나 마찬가지다. 산등성이나 묘지 사잇길을 따라 등산을 하거나 조깅, 가벼운 산책을 하기에 좋다. 특히 물속 생태계나 곤충 등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생태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산곡동 명신여고 부근 현대아파트 뒤 철마산 등허리에 철마약수터가 있다. 이곳에는 한여름 물장구를 치며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 정상을 향해 오르면 배드민턴장이 있고 멀리 바닷가까지 보이는 철마정이 땀에 흠뻑 젖은 방문객을 기다린다.

자비의 향기 물 따라 흐르고

좋은 물과 사찰은 한 쌍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가장 돋보이는 곳으로 강화 마니산 동쪽 기슭에 있는 정수사를 빼놓을 수 없다. 신라 선덕왕 8년(639)에 창건된 이 사찰은 1426년 함허(涵虛·1376~1433)가 절을 고쳐 지을 때 법당 서쪽 산신각 아래 바위틈에서 맑은 물이 솟아났다. 석중천(石中泉)으로 그 맛이 오묘하여 무거운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나는 물이라고 한다. 이 물맛 때문에 함허에 의해 절 이름이 정수사(淨修寺)에서 '물 수(水)' 자가 든 정수사(淨水寺)로 바뀌었을 정도다. 따로이 마련된 운동시설은 없지만 입구에서 정수사까지 오르는 숲길이 환상적이며 절 옆으로 마니산 정상에 이르는 등산로가 있다.

연수구 방향의 문학산 중턱에는 청학사약수터가 있다. 문학터널 위쪽에 위치한 이곳은 탁트인 시야와 잘 가꾸어진 등산로가 있어 찾는 이들이 꾸준하다. 절까지 오르는 길 자체가 등산인 셈으로 우거진 숲과 아늑한 산사, 물이 한데 어우러진 곳이다. 차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운동삼아 걸어가도 좋겠다.



1 서구 석남동 약수터 계곡 물놀이
2 서구 석남약수터
3 선포약수터 야외무대에서 본 전경



- 1 정수사 약수터
- 2 호불사 야외헬스형 운동기구
- 3 문화산 청학사 약수터
- 4 지선사 약수터
- 5 오읍약수터
- 6 찬우물약수터

아울러 연수구 청량산 시립박물관 못 미처 **호불사약수터**도 시민들이 즐겨찾는 약수터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이곳은 최근 공원으로 조성돼 운동시설과 휴식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곳곳에 야외 헬스형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목조데크로 산책로와 앉을 곳을 마련해 놓았다. 어린이 놀이터도 별도로 마련해 놓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나들이에 제격이다.

이밖에 징맥이 고개 옆 계양산 자락에 **지선사약수터**가 있다. 주변에 삼림욕장이 있으며 야생화동산과 사계절 자연학습장이 마련돼 있다. 운동과 산책은 물론 만남의 장소로도 유용한 곳이다.

역사의 애환서린 아릿한 물맛

강화산성 북문주차장에서 약수터를 향해 걷노라면 숲속 오솔길이 들려주는 역사이야기에 가슴이 울렁인다. **오읍약수**는 고려때 생겼다고 한다. 고려 고종은 1232년 강화로 천도하여 2년간에 걸쳐 내성과 궁궐, 관아를 건축했다. 그때 많은 강화인들이 동원되어 북문을 건축하던 중 날씨가 가물어 더욱 힘들었다 한다. 고종은 북문 앞에 제단을 쌓고 기우제를 올렸는데 정성을 어여뻐 보았음인지 하늘이 어둡기 시작하고 천둥까지 쳤다고 한다. 바로 그때 벼락이 큰바위에 떨어지며 물이 솟아 약수가 되었다. 이에 제를 지내던 모든 사람들은 “살았구나”를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여 ‘오읍약수(五泣藥水)’라 부른다.

배드민턴장을 지나 아래로 내려가면 약수가 일년내내 흐른다. 이곳에 가려면 강화대교를 건너 계속 직진해서 인삼센터 3거리를 통과한 후 강화군청 이정표를 지나쳐 고려궁지까지 간다. 고려궁지 왼쪽 주차장을 끼고 언덕을 계속 오르면 멀리 강화산성 북문이 보인다. 북문을 통과해 오른쪽 길이 오읍약수로 이른다.

또 하나, **찬우물약수터**가 있다. 강화도령 원범이는 조선 24대 헌종의 뒤를 이어 왕으로 추대되어 강화를 떠났는데 훗날 철종으로 불리게 된다. 원범은 14살에 강화로 부친과 함께 유배되어 왔다. 강화도령은 천주교 박해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홀로 19살까지 강화도에 숨어살았다. 그때 위로를 해주고 삶의 희망을 심어준 아가씨가 양순이다. 이들은 강화읍 내수골 도령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찬우물에서 사랑을 확인하곤 했단다.

그러나 나뭇꾼 강화도령과 양순이는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헤어져야만 했다. 임금으로 등극한 강화도령은 찬우물 사랑을 잊지 못해 “강화도가 좋았다”는 말을 틈만 있으면 했다고 전하며 양순이는 임금이 되신 도령과의 사랑을 정절로 지키며 홀로 일생을 살았다고 전한다.

강화읍 터미널에서 외포리, 전등사 방향으로 4차선 큰길을 따라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찬우물이 보인다. 나물, 야채, 과일 등 소박한 소출을 파는 시골 아낙들이 방문객을 맞는다.

글 _ 지영일 (Incheon@news 편집위원 · openme@incheon.go.kr) /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프 리 즘 | 담장없애기

담장은 와르르 신록은 푸르르

부평구에 사는 최성용 씨의 집 앞마당은 동네 어르신들이 잠시 쉬었다 가고 사진촬영도 하는 공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003년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고 돌계단을 만들어 쉼터로 꾸민 덕분이다. 우리시가 3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담장없애기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2003년 9개 장소의 담을 허물고 4천 600그루의 나무를 심는데 이어 지난해에는 27개 건물의 담장이 사라졌고 올해는 단독주택 20개소를 비롯해 80개 건물의 담장에 4만2천여그루의 나무가 착착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다.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는 목적은 뚜렷하다. 나무를 심어 부족한 도심의 녹지를 넓히기 위해서다. 거기에 이웃간 공동체 의식을 높여서 주민들끼리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정감 있는 골목문화를 만들자는 목적도 더해진다.

그렇다면 도심에 왜 녹지를 늘려야 할까? 우리시가 조사한 ‘도시생태현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2002년 9월 10일 10시 기준으로 우리시의 평균 온도는 24.9℃였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남동공단, 부평 등 공장지역, 상업지역, 주거 밀집지역은 32℃이상을 보인 반면 인천대공원, 문학산 등은 18℃이하로 낮게 나타나 녹지지역과 공장지역의 온도차이는 20도 가까이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같은 인천에서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른 셈이다. 이는 도심의 녹지가 부족해 열섬화, 열대야가 발생하고 더운 지역은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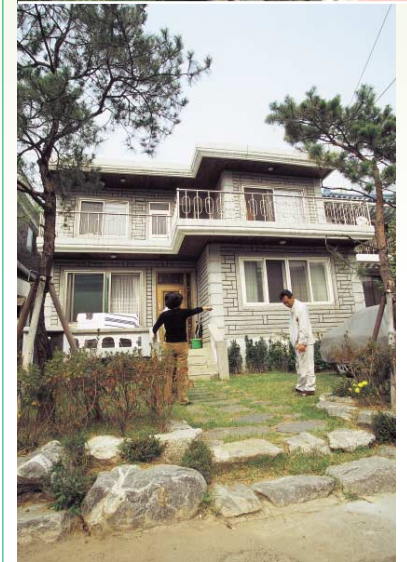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우리시가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고 도심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 주택과 다중이용 시설의 담장을 허무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담장없애기를 신청하면 우리시가 담장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전액 계상하여 지원하고 조경사업비는 단독주택은 500만원 범위 내에서, 다중성 건물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 개인주택이나 건물의 주인이 담장허물기를 신청할 경우 우리시는 사업지로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우선 지역주민의 쉼터 또는 가로화단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인지의 공공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또는 주변 녹지와 연계되는 지역인지의 환경성,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 가능한 접근성, 효율적인 사업비가 투자되고 녹지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지의 경제성 등을 타진한다. 특히 녹지 확보가 가능한 3가구 이상 연계되는 주택, 소공원 등 지역주민의 쉼터 역할이 가능한 지역, 녹지 확대대상 면적이 큰 곳 중 대로변에 접한 곳, 수목식재로 도심 미관을 높일 수 있는 곳, 공동주택 녹지 등 녹지개방이 가능한 곳,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연계 장소 중 수목식재가 가능한 곳이 우선 사업대상지가 된다. 즉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장, 교회 등 담장을 허물고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면 우선 신청 대상이 된다.

우리시는 8월 31일까지 내년도 담장허물기 사업대상지를 신청 받고 있다. 사업신청은 각 구청 녹지담당부서나 시청 녹지조경과에 8월 30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구청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을 대신해 준다. (문의 _ 시 녹지조경과 440-3732)

글 _ 정경애 (편집위원 · happyjka@incheon.go.kr)



위 : 담장을 없앤 남인천여중
아래 : 부평구 최성용 씨 집 앞마당

그 해 여름에도 역사는 흘렀다



김민수(대정초 1학년)는 젓가락질이 서툰고 연필 잡는 게 부자연스럽다. 공책이 구멍 날 정도로 연필에 힘을 쥐 꺾어 쓰기를 한다. 아직은 언니처럼 0.5mm샤프를 욕심내지 않고 용돈으로 예쁜 스티커를 사지 않는다. 그런 일곱 살 동생은 다른 학교 운동장에 왜 왔냐고 묻는다. 언니 계령(같은학교 4학년)이는 영어를 잘해 통역사를 꿈꾼다. 우리 역사를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다부지게 말한다. 그게 아니면 챗리스트는 어떨까도 생각해 본단다. 탄산음료 병뚜껑이 펍 소리를 내며 시원하게 여름하늘을 박차 오르는 희망이다.

웅기 종기 역사의 현장

부평초등학교 안에는 부평도호부청사와 어사대, 옥은지 등 귀중한 문화유산이 있고, 교정 한 모퉁이에 서있는 보호수 두 그루는 언뜻 보기에 오래 역사의 풍상을 느끼게 한다. 높이 25m 가량 되고 나이는 약 600년으로 짐작하는데, 조선 초 어느 시기에 청사 안에 심은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일행은 역사의 그늘로 모여들었다. 계령이와 민수는 아름드리 나무를 감싸안고 줄 자처럼 팔을 늘리고 엄마 홍유림(39)씨도 나이트를 생각하며 동그란 줄긋기를 해 본다. 단아한 옷 매무새가 어여쁜 김용분(47) 문화유산해설사가 부평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전해주었다.

도호부청사 주변은 작년 12월 십터가 조성돼 전통담장, 석등, 원형의자, 수목식재 등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생겼다. 이때 구는 그 동안 분산돼 있던 부평부사 공덕비 21개와 어사대 표지석 등 문화재를 도호부청사주변으로 이전해 문화재 보존은 물론 주민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공개했다.

헌데, 엄마 홍유림 씨는 한 가지 서운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 “도호부청사와 옥은지, 어사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철 담장을 쳤는데 그 키가 어른의 한 배 반 정도 나 되다니요. 숨결을 가까이서 느낄 수 없고 열기설기 철망사이로 눈을 갖다 대어야 빗금의 방해 없이 전체를 볼 수 있어 답답하네요. 안내표지판까지 담장 안에 들어가 설명을 읽기 힘들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보호 보다는 역사를 가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장에 축구공이 넘어가면 도둑처럼 담을 넘어야 하고, 열쇠를 구하려면 학교 행정실로 달려가야 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역사는 장식장에 잘 보관돼 사람 발길이 끊긴 습한 그늘에선 초파리들이 티끌처럼 날렸다. 역사는 본의 아니게 ‘넘어오지 마시오. 보호되고 있음’을 외친다. 심정이 불편해 보였다. 그런 불편함만 아니면, 마당 안 역사를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어 친근할 텐데….



1 철 담장에 둘러싸여 아쉬움을 주는 부평초등학교 내 부평도호부청사 2 부평도호부청사와 600년 역사를 함께 한 은행나무 3 부평부사의 선정을 기린 21개 공적비

일제에 의해 훼손된 부평도호부청사 (富平都護府廳舍)

해설사는 미리 준비한 <부평의 지명 변천사>를 참고 인쇄물로 건넸다. 삼국시대부터 근대이후까지 인천, 부평, 강화를 비교하며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번 탐방은 걷는 보폭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다. 탐방의 역사 흔적이 부평초등학교 담 모퉁이에 한데 모여 있기 때문이다.

부평은 고려 의종 4년(1150)에 안남도호부가, 고종 2년(1215)에 계양도호부가 설치되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종 13년(1413)에 부평도호부가 각각 설치되었다. <부평부읍지>에 의하면 부평도호부 내에는 객사, 동·

축하합니다,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 회사 창립 5주년 기념으로 실시한 경품행사에 당첨되어 골드회원으로 모십니다. 매월 4만원씩 24개월만 결제하시면 핸드폰 요금 할인, 스키장·콘도·팬션·리조트 할인, 주유소 할인, 제주도 무료 여행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조치가 필요하니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 주세요.’

2004년 7월 만수동에 사는 문정훈(가명, 50대)씨는 핸드폰 전화로 S할인회원권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 주어 결제하였다. 며칠 후 택배로 도착한 계약서와 설명서를 읽어보니 당초 설명과 달리 서비스 이용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업체 담당자가 1달 안에는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1달 후 다시 전화해 해지를 요청했으나 이미 청약철회기간이 지나 해지하여 줄 수 없으며, 해지하려면 30%의 위약금을 내라는 답변을 들었다.

2005년 1월 말 만수동에 사는 김민화(가명, 40대)씨는 기름값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보내준다는 전화를 받고,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요청에 자신의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일러 주었다. 가입의사가 확실하지 않았던 김씨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텔레마케터는 신용카드번호는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할 뿐 절대로 결제는 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1달 후 김씨에게 신용카드 대금 596,000원이 청구되었고, 화가 난 김씨가 업체에 연락하였으나 없는 전화번호로 안내되었다.

할인회원권이란 업체가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입비를 내고 회원에 가입하면 물품 구입시의 할인, 여행 및 콘도, 스키장 이용시 할인 등 서비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계약 후 업체가 계약시 약속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할인을, 할부기간, 서비스 내용이 당초 계약내용과 달라지는 경우 업체의 도산이나 부도시에는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게 된다. 할인회원권 판매는 대부분 전화나 휴대폰을 통해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회원가입 실적으로 수당을 받는 텔레마케터는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의 주의를 흐리게 만들며, 말로 설명한 내용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워 소비자가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해야 한다.

※할인회원권 피해를 막으려면

- ①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는 것은 계약 체결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함부로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 ②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회원 모집을 위해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할 수 있으며, 말로 약속한 내용은 나중에 입증하기가 어렵다.
- ③ 계약을 철회할 뜻이 있으면 청약 철회 기간 이내(14일)에 업체와 카드사 앞으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 ④ 현금 결제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대신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업체가 파산하는 경우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청약 철회 기간 내 철회를 요구해도 물품이 훼손되면 업체에서는 이를 빌미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철회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
- ⑥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소비자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료제공 _ 인천시 소비생활센터(442-9872, <http://consumer.incheon.go.kr>)

서헌, 삼문, 근민당, 좌·우 익랑, 동·서책방, 사령청, 향청, 포도청, 훈무당, 부창 등 여러 채의 건물이 있었다고 전한다.

현재 남아 있는 내아(동헌이라는 견해도 있음) 건물은 당초 ‘ㄱ’ 자형 건물이었으나 현 위치로 이전하면서 ‘一’ 자형건물로 변형되었으며 정면 6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 도리집이다.

“본래의 모양을 잘 유지해 오던 부평도호부청사가 그 모습을 잃은 것은 일본이 그 곳에 초등학교를 세우면서지요. 그들은 대부분의 건물은 헐어 버리고 동헌만을 초등학교 한 모퉁이로 옮겨 짓고, 학교 건물의 일부로 이를 사용했어요. 조선시대 지방 행정 조직의 심장부인 도호부 터를 학교로 만들어 식민 교육의 발판으로 삼은 일본의 침략 정치를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임금님이 손 씻은 연못

해설사는 청사 건물 앞 물이 없는 연못을 가리켰다. 욕은지(시문화재자료 제1호)는 원래 지금의 자리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고종 24년(1887)에 이전하며 보수한 것이라고 전한다. 길고 큰 돌로 가로 18m, 세로 16m 규모로 쌓은 조선시대 네모꼴의 인공연못이다. 연못 안에는 돌로 작은 동산을 만들어 각종 풀과 꽃을 심었다. 또 연못 쪽으로 돌다리를 놓았다.

정조(定祖)는 왕위에 오르자 생부인 장헌(사도)세자의 묘를 양주에서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1년에 한 차례씩 찾았다. 특히 21년(1789)에는 먼저 할머니인 인현왕후의 묘소인 김포 장릉을 참배하고 부평, 안산을 거쳐 수원의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했다. 이때 정조는 부평에 머물며 부평 부사를 만나 활을 쏘고 이곳 욕은지에서 손을 씻었다고 한다. 지금은 연못 동쪽 돌 축대 가운데에 ‘욕은지(浴恩池)’라고 새겨진 돌이 덩그러니 세워져 있을 뿐, 연못의 기능은 하지 않고 있다.

계령이는 “연못 바닥이 말라있어서 언제나 가뭄 같아요. 물이 차 있으면 문화재가 더 아름다워 보여서 임금님이 다녀가실만 하구나 하고 생각이 연결 될 것 같아요.” 한다. 연못이라는 얘기를 듣고 내심 기대를 했었나 보다.

욕은지 동쪽으로 10m 떨어진 곳에는 정조가 활을 쏘던 ‘어사대(御射臺, 시 문화재자료 제3호)’ 표지석이 있다. 정조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릉원(지금의 용릉)을 참배하러 가던 길에 들러 활을 쏘았다고 한다. 정조는 활 쏘기를 좋아해서 수원에서도 여러 차례 활을 쏘고 신하들에게도 활을 쏘게 한 기록이 남아 있다.

어린 민수는 담장 아래서 쥐며느리 잡느라 꾸그렸던 허리를 폈다. “엄마, 난 공덕비 세는 게 좋아요. 스물 한 개예요. 숨바꼭질도 재밌구요.”

민수처럼 역사의 지식을 챙겨가지 않아도 좋다. 여름 바캉스, 빙수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유혹을 멈추지 않더라도 ‘내고장 역사의 숨결’ 그 맥박에 나침반을 얹어놓자. 멀찌감치 600년을 서있는 암·수 은행나무의 그리움을 달래주자.

글 _ 조은숙 (부평사람들 기자 · eyagi9090@yahoo.co.kr)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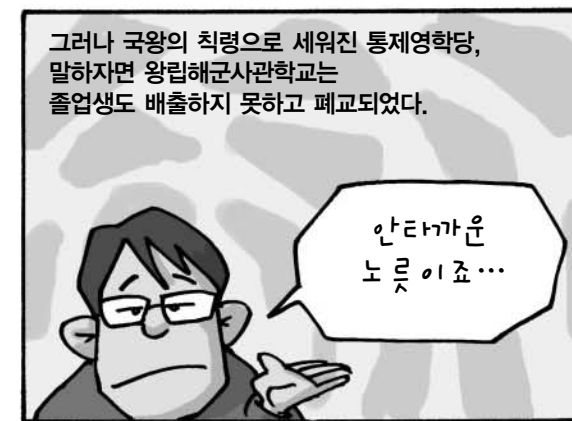


1 어사대 표지석 2 물이 말라버린 욕은지 3 부평의 역사를 듣기 위해 용기종기 모여앉은 일행

찾아가는 길 _ 인천지하철 1호선을 타고 계산역에 내린 후 계산동사무소 방면 출구로 나와 계산1동사무소에서 50m 정도 가면 부평초등학교가 나온다. 그 안에 부평도호부청사, 욕은지, 어사대, 은행나무가 있다.

강화에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사관학교 창설

그림 _ 김신 (www.cyworld.com/sinitoon)



황해를 블루오션으로 가꾼다



글 _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천 앞바다는 파란 색이다.’ 누군가 황해의 색깔이 파란 색이라고 주장한다면 정신이 조금 이상하거나 우스운 사람 취급을 받을 지도 모른다. 중국에서 흘러나오는 황하 흙탕물의 영향으로 인천 앞바다는 약간 탁한 빛깔을 띤다. 그래서 이름도 황해이지 않던가. 그러나 나는 인천 앞바다의 색깔을 파란색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것도 아주 청명한 블루의 색상을 띠는 대양이라고 말하고 싶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알아채셨을 지도 모르지만, 요즘 세간에서 한창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블루오션 전략(Blue Ocean Strategy)’에 관한 이야기다. 블루오션, 말 그대로 파란 바다다. 기업 간의 경쟁이 거의 없는 새롭게 개척된

시장을 뜻하는, 피 튀기는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레드오션(Red Ocean)의 반대 개념이다. 많은 이익을 내고 경영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레드오션보다 블루오션으로 뛰어 들어야만 한다.

난데없이 블루오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황해의 바다 색깔과 인천항의 미래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 앞바다의 색깔은 보는 이들에 따라 달라진다. 인천항이 기존 부산·광양 두 포트(two port) 사이에 낀 경쟁력 없는 항만이거나, 새롭게 떠오르는 평택항에 밀리는 구식 항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는 인천 앞바다는 그야말로 적자생존의 레드오션이다.

하지만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2천만 인구의 수도권을 잇는 가교로서 인천항을 바라본다면 그 빛깔은 사뭇 달라진다. 인천항은 인천공항, 송도국제도시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물동량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과거의 인천항은 이런 물량을 처리할 시설이 미비 돼 있었다. 그 결과 중국에서 나온 화물이 먼 바닷길을 돌아 부산을 거쳐 다시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수도권으로 올라온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 6월 11일 출범한 인천항만공사(IPA)가 할 일은 명확하다. 항만 시설을 제 때에 확충해 많은 화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배후 물류단지를 개발하여 종합 물류 클러스터를 만든 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목표이다. 또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화물을 끌어 모으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빠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인천항은 환황해권의 중심 항만이 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사람과 화물, 정보가 모이는 항만. 수도권과 중국 대륙을 연결하는 환황해권의 물류 중심기지. 이것이 바로 인천항이 개척해야 할 블루오션이다.

인천항만공사(IPA)의 출범으로 이제 인천항은 제2의 개항을 맞게 됐다. 인천항 앞에 펼쳐진 서해안 역시 붉고 혼탁한 바다에서 맑고 파란 대양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아이고 배야” 장염이 활기 띠는 계절

글 _ 김기영 (자애내과 원장 · 내과전문의 · 529-1002)

여름철은 주5일근무와 휴가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만큼 외식의 기회가 많아져서 장염이나 염증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많아 주의를 요합니다.

장염은 식중독 또는 장점막의 세균 감염 등에 의해 장점막이 손상되는 병으로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식중독과 같은 각종 바이러스성 감염과 세균성 감염 등으로 인한 감염성 장염이 흔하며, 크론씨병,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만성 질환도 있습니다. 장염은 급성 장염과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급성 장염은 바이러스 또는 세균 및 세균이 만든 독소에 의한 염증으로 대부분의 경우 수 일내에 호전되는 장의 염증인 반면 만성 염증성 장질환은 오랜 기간 동안 염증이 지속되는 질환입니다.

장염의 주된 증상은 복통과 설사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열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확히 위치를 알 수 없는 묵직한 통증이 가장 흔하며, 이러한 묵직한 통증으로 시작하여 뒤틀리는 듯이 심하게 아픈 통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설사는 적게는 2~3회 정도에서 많게는 20여회가 넘는 경우까지 그 빈도가 다양합니다. 소장이 감염된 경우에는 변에 코와 같은 점액이 별로 섞여 나오지 않는 반면 대장이 감염된 경우 점액이 많이 섞여 나오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3~4일 정도면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때에 따라서는 만성 장염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감염성인 경우에는 각각의 균에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투여하며, 복통이 심한 경우 진정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일반 성인의 경우 1~2일 정도 시중의 이온음료를 마시는 정도로 안정을 취하고 죽과 같은 유동식으로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하고 음식을 잘 씹어먹도록 합니다. 증상에 따라 유동식에서 반유동식, 연식, 경식으로 점차 교체해 나갑니다.



설사가 주된 증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극성이 적은 식사를 권합니다. 소화되지 않는 지방, 다량의 지방 섭취는 피하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심한 설사와 구토로 쉽게 탈수 될 수 있으므로 탈수되지 않도록 수분 공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우유나 과일, 주스, 고기 등은 완전 회복 될 때까지는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액 주사 등의 치료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잘 씻고 음식물을 잘 조리하여 먹는 등의 청결한 위생습관과 과식, 과음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물을 피하고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해야 합니다. 고열이나 몸살, 복통이 심하고 대변에 피가 묻어나올 때는 반드시 주치의의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길안과, 보건복지부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수준의 전문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21개 전문 병원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했다. 그 중 우리 관내 병원으로 ‘한길안과병원’이 선정돼 지난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로 개원 20년을 맞은 한길안과는 백내장, 녹내장, 망막관련 질환, 사시, 약시, 안구성형 등 안과 분야의 모든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수술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안과 전문 병원으로 꼽히고 있다. 2004년의 경우 한해 5천 여건의 수술을 포함해 모두 8만 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등 백내장, 망막 그리고 라식 등 3개 분야의 임상능력이 국내 최정상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영원한 ‘ซิส터’ 신인미 마리 임마누엘 수녀님

계양구 계산2동 40번지, 계양산 자락에 자리잡은 노틀담수녀회, 그 밑 솔솔 안에 아주 편안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붉은 벽돌집 노틀담복지관, 거기 관장인 신인미(申仁美) 마리 임마누엘 수녀님을 만난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유쾌한 일이었다. 감자 찌는 가마니 솔처럼 끓는 날씨였는데도 우선, 더위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 몸에서 땀은 흘렸겠지만 전혀 그걸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두 시간 남짓 ‘ซิส터’ 께서 여기저기를 보여 주고 설명하면서 내 영혼에 전염시킨 삶의 행복감, 기쁨, 그런 것 때문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시간 내내 머리 속에서는 우피 골드버그 주연의 그 유쾌한 코미디 〈시스터 액트〉를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온 치외법권 지대 수도원. 범죄 현장을 목격한 위험한 증인이어서 외부와 단절된, 바로 그곳 수녀원에 숨겨진 들로리스, 그리고 원칙주의자 원장 수녀, 성가대, ‘I Will Follow Him’의 경쾌한 리듬과 멜로디. 이렇게 끊임없이 즐거운 영화의 즐거리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실상 마리 임마누엘 수녀님에게서 엉뚱하게도 문득 영화 속, 성가대의 지휘봉을 넘겨받은 시스터 들로리스의 생기와 천진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다. 맞았다. 노틀담복지관 관장, 지휘자 임마누엘 수녀님. 시스터의 지휘봉은 하루하루를 아주 자연스럽게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었다.

세속 나이야 어떻든, ‘사진을 예쁘게 찍으라’는 장난기 어린 시스터의 음성엔 여전히 작은 종처럼 밝게 땡그랑거리고, 눈동자는 젊은 처자처럼 늘 웃고 있고, 거기에 신바람과 활기 넘치는 걸음걸이! 시스터의 지휘봉 앞에 누가, 어떤 식구가 침울할 수가 있고 결의 누가 웃지 않을 수 있으랴. 그래서 더욱 여기 식구들은 모두 행복하고 화목하고 우애로써 삶을 사는 것이다.





“이리로 시집온 것 말이지요? 팔자지요.”

왜 수녀가 되었느냐는 이쪽 ‘세속 진때’가 던진 어리석은 질문에 단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시원시원하게,ซิส터는 또 그, 세계에서 가장 밝은 모습의 작은 소녀처럼 답한다. 이 노틀담수녀원에 입회한 것을 시집온 것이라고, ‘성소(聖召)’를 팔자라고 해 버리는 함축과 은유. 그리고 여기로 시집왔으니 여기 ‘여자들’이 평생 지켜야 할 세 가지 ‘부덕(婦德)’ 즉, ‘정결(貞潔), 순명(順命), 청빈(淸貧)’을 말한다. 창밖 한여름의 녹음이 더 짙다.

“애초부터 가톨릭 집안은 아니었어요. 인천 토박이, 송림동 출신이지요. 학교는 인천여고를 나왔고요. 여학교 나온 뒤 가톨릭에 입교를 하게 되었고, 영세를 받고 수녀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뭐, 그냥,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수도자로서 사는 것도 보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입회를 했어요. 나이에 비해 좀 늦은 편이었어요. 종신서원(終身誓願)을 한 해가 1991년이던가… 지금은 두 분 부모님 다 가셨지만, 어머니께서는 죽어도 눈 감지 못 한다고 하셨지요.”

그래도 궁금한 것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이쪽을 위해 덧붙여 해 주는 대답 속에는 육신의 어머니께서 그토록 반대하시던 것과 아버지께서는 의외로 ‘네가 선택한 길이니 네가 책임지고 후회 없이 잘 살아라’ 하시던 사연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그러면서도 조금은 가슴이 저미는 듯한 인간의 이야기, 성모님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 일도 아니고, 또 봉사도 아니예요. 장애인들과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기쁘게 느끼는 사람들이 그냥 함께 살아가는 곳이니까 일이란 말도 틀리고, 봉사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지요. 내가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생활하는 것은 그저 인간이 인간답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그런 행복한 과정일 뿐이지요.”

이상하게 한 가지 물건에만 집착하는 아이, 크게 목소리를 내는 소녀, 늘 곁에서 시중을 들어야 하는 사람, 마음이 아픈 소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청년, 이렇게 너무나 많이 아픈 하느님의 자녀들과 사는 일.ซิส터는 그들을 돌본다는 말조차 인간으로서의 겸손을 넘어선다는 것을 지적한다. 인간은 다만 같이 사는 것.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일 뿐.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노틀담복지관의 관혼으로 살아 있다.

“하나 된 우리!” ‘하나’라는 정상화의 이념으로 장애인과 직원, 지역 주민이 동등한 ‘우리’로서 하나 되는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의미!

수녀님과 복지관측 식구들은 어제 이미 다들 먹었다며, 이쪽 세 사람만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삼계탕을 내놓는다. 새삼, 넓은 식당 안의 장애인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봉사자들이 만들어 내는 터질 듯 팽팽하고 그러면서 환하고 고운 분위기, 그 아름다운 활기를 느껴 본다. 누군가 소리를 지른다. 그것이 여기 사람들은 누구나 알아듣는 ‘그 아이의 자기 표현’인 줄을 조금 뒤에야 깨닫는다. 천상의 목소리를 들으며 천상의 음식을 먹는다.



장애인을 위한 노틀담복지관은 노틀담수녀회의 작은 집이다. 그렇다고 무슨 상하관계나 종속관계를 의미하는 ‘작은 집’이 아니다. 따라서 두 집의 살림이 다르고, 방도 다르고 식구도 다르다. 같은 것들이 있다면 똑같이 보이는 하늘, 똑같은 성모상, 똑같은 성당, 똑같이 둘러싼 소나무 바다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정상인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집 식구 모두가 마음을 다해 똑같이 기도하는 일이다.

이 노틀담복지관은 1987년 수녀님들이 오로지 기도 하나만으로 시작한 ‘노틀담장애인교육원’이 그 시초이다. 장애인들 자활을 위해 귀금속, 섬유, 칠보공예 등의 기술과 자수, 제도, 제과제빵 등의 직업 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초기에는 어려운 일, 힘든 고비가 많았다. 지금은 시 행정 기관에서 얼마간의 예산을 지원받지만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

그러나ซิส터들은 누구도 어려운 얼굴을 하지 않는다. 팔의 인대가 늘어난 또 한 시스터에게 복싱을 하다가 다쳤다는, 그런 식의 농담으로 끊임없이 웃어넘기는 마음의 풍요와 여유, 수도(修道).

“자 이제 성당을 보여드릴게요.”

언제나 밝은 시스터를 따라 나선다. 14처(處)가 있는 정원을 지나 특이하게 지은, 수녀원과 학생 교육원 사이의 성당에 올라간다. 잘 닦인 나무 계단, 성자들의 숨소리가 들릴 듯한 고요, 유리 사이로 들어오는 한 조각의 햇빛, 성화, 작은 묵상의 방들, 묵상의 책들, 기도서, 수건, 고상, 그 밑의 장례틀에 무릎을 꿇은 젊은 수녀들… 눈을 감아 본다. 오랜만에 아주 짧은 기도를 해 본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다. 사진을 찍고 있는 시스터, 신인미 마리 임마누엘 수녀님의, 지상에서 착한 한 여인의 주름잡힌 옆얼굴을 본다. 시스터의 곁으로 가자. 그 작은 종소리처럼 울리는 목소리와 천진과 생기를 만나러 가자.

글_ 김 류(시인 · eoeul@hanmail.net / 본명 김윤식) / 사진_ 김보섭 (자유사진가 · ericahkim@yahoo.com)

ซิส터를 만나러 갑시다

결연후원 440-01424-257(한미은행) 예금주 노틀담복지관
일반후원 302-52462-253(한미은행) 예금주 노틀담복지관
(물품후원 전화 _ 542-3711)

친정이 좋은 이유

이제 십여일만 있으면 아이들의 신나는 여름 방학이 시작된다. 친정이 속초라 우린 따로 피서지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짐을 꾸려 아이들과 함께 떠나기만 하면 시원한 바다와 울창한 숲이 우릴 반긴다.

새벽잠을 깨우는 매미와 하늘 높이 나는 잠자리 떼를 아이들은 하루 종일 쫓아다닌다. 작년에는 제1회 대한민국 음악축제가 친정인 속초에서 있었다. 조카와 딸은 저녁 7시에 생방송인데 오후 1시부터 그 더운 땀벌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기도 했다. 보아와 동방신기를 보기 위해서… 그냥 집에 앉아 TV로 시청하면 좋을 것을 아무리 말려도 일주일 내내 그 일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트로트 가수들이 공연하는 날이 있었다. 친정 부모님과 언니 내외 그리고 우리부부는 아침부터 줄을 서기 위해 공연장을 찾았다. 딸 아이의 한마디. “엄마도 그냥 집에서 TV시청을 하시기 왜 공연장을 찾아요” 말에 가시가 있다.

그래도 그날 공연은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보고 왔다. 10년 묵은 체기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올해도 7월말쯤 친정에 갈 예정이다. 벌써부터 시원스레 펼쳐진 바다가 보고 싶어진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소리와 간간히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를 들으면서 싱싱한 회 한 접시에 우리가족은 행복감에 빠져들 것이다.

여러분 속초로 놀러오세요~ (천진 해수욕장으로…꼭이요!)

황금숙 (서구 가정 3동)

잔디씨 뽑는 여름방학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여름방학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숙제는 편지봉투 반 정도 잔디 씨를 채워오는 일이다. 매일 조금씩 뽑아 댔더라면 개학이 임박할 즈음 그리 바쁘지 않았을텐데… 다른 숙제는 둘째 치고라도 잔디 씨를 가져오면 점수가 후했다. 개학이 코 앞에 닥칠 즈음 코가 빠져라 뒷산 무덤을 쭈셔댄다. 잔디 씨가 콩알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친구, 언니와 함께 더위도 잊고 집 근처 산에서 들에서 땀 뺀질뺀질 흘리며 숨바꼭질을 했다. 숙제 핑계 삼아 산에서 들에서 뒹굴다 저녁 어스름에 내려와도 용서가 되던 그때가 좋았다.

지금 아이들은 방학이 싫다고 할 정도로 이 학원 저 학원 스케줄로 빡빡하니…

방학 때만이라도 맘껏 뛰어 놀 수 있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지각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황순미 (부평구 산곡2동)

내 이름은 오광복

나는 1984년 8월 15일 밤 8시에 태어났다. 그 때문에 남자도 아닌 여자인 내 이름은 오광복이다.

오광복이란 이름 때문에 학교 다니기도 창피했다. 아니 다니기 싫었다. 항상 친구들 생일파티에는 꼬박꼬박 선물을 들고 가면서 내 생일만 되면 생일파티는 커녕 축하한다는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내 생일은 항상 여름방학이었으니까. 여름방학이 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생일도 못하고, 나만 집에서 뒹굴뒹굴 도는 처지였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는 남원에 있는 할머니댁에 놀러갔다. 2주일동안 할머니에게 맡겨진 나는 동네 아이들과 친해져야 했다. 옆집에 진실이란 여자 아이가 살았는데 할머니랑 옆집 할머니가 친해서 우리도 친해졌다. 하지만, 점점 동네 아이들을 알아가고 친해지는 과정에서 이름을 말하기가 그렇게 창피할 수 없었다.

“안녕, 넌 어디서 왔어? 이름이 뭐야?” “난, 인천에서 우리 할머니네로 놀러온거야. 내 이름…오…광…복…이야…” “뭐, 이름이 뭐라고?” “…오광복이라고!”

아이들은 킥킥덕 웃기 시작했고, 나는 또 풀이 죽어서 할머니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곳 아이들은 나를 너그러이 받아주었고, 이름이 무슨 상관이나고 더욱 잘 대해주었다.

아이들과 강가에 놀러 갔다가 내가 물에 빠졌던 기억이 있다.

친구들이 사람들을 부르러 갔고, 동네 사람들도 할머니도 달려와서 나를 불러댔다. “광복아! 광복아!” 난 물에 빠져서 다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듣고 비웃는다는 생각에 그게 더 걱정스러웠다.

그 후로 할머니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보면 ‘광복아!’ 하고 한번 씩 불렀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정말 싫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름이 특이해서 사람들이 나를 더 기억해주고, 내 존재가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를 더욱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다.

이제 오광복이란 이름이 전혀 창피하지 않다.

오광복 (남구 학익1동)



여름방학과 태풍과 한여름밤의 꿈

벌써 10년 전인 고등학교시절, 여름방학이 되자 친구들과 함께 부모님 몰래 2박3일 코스로 지리산 계곡에 놀러갔었다. 막상 지리산 계곡에 도착하고 보니 명당자리는 고사하고 텐트 칠 만한 곳이 없어 우린 이리저리 헤매야 했다. 한참을 헤매고서 찾은 장소는 계곡 시냇물 한가운데 위치한 조그마한 바위 언덕이었다. 첫날 저녁 우리는 그야말로 여름피서의 기분을 맘껏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날 오후쯤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물론 나와 나의 친구들은 내리는 비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친듯이 소리를 질러가며 놀았다. 한참을 그렇게 게임을 즐기는데 라디오에서 이상한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태풍 애니’가 복상중이며 남부지방에 태풍주의보가 내려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친구들과 나는 여전히 카드게임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잠시 후 텐트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니 경찰차가 우리를 향해 불빛을 비추며 “거기 텐트에 계시는 분들 대피하십시오”라며 방송을 했다. 과연 친구들과 밖으로 나와 보니 텐트주위 바위 언덕까지 물이 올라오고 있었다. 나와 친구들은 그 즉시 도로가 있는 언덕으로 이동을 해야 했지만 우리의 머리 속엔 온통 아까한 게임만이 가득했었다.

텐트로 다시 돌아와 한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새벽 3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우리가 앉아있는 텐트 밑으로 차디찬 무언가가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일어서서 텐트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우리는 텐트 채 급류에 휩쓸려가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흘러갔을까? 텐트가 무언가에 부딪쳐서 멈췄고 우린 텐트 밖을 내다봤다. 텐트가 간신히 바위에 부딪쳐 급류에 떠내려가고 있지 않는 거였다.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였다. 제발 비가 그쳐주길 기도했고 계곡에 불어난 물이 줄어들기를 기도했으며 또한 어서 아침이 와주길 간절히 기도했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지금은 이렇게 그 때 일을 회상하지만 그날 저녁은 말 그대로 한여름 밤의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박판기 (계양구 계산동)

여자에겐 더티한게 매력이 될 수 없다



대천에 가기 전날 서울에서 밤새 취재하다가 온양온천에서 바로 신문사 MT. 머리를 감지 않아서 손수건으로 머리를 짚곤 묶고, 렌즈 세척을 못해서 안경도 썼어요. 신문 발행 때문에 철야작업으로 4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봤자 빨래를 하도 안해 갈아입을 옷이 없어 룸메이트 정은이 군복 점퍼를 살짝 입고~ 대학생들의 놀이터 대천에 갔답니다. 여자에겐 더티한게 매력이 될 수 없다면 나의 여성성의 인생은 너무 우울한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 걱정하지 마시라~ 여자에겐 더티한게 매력이 될 수 없어도 나의 본연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성들이여 멘토를 가져라~ 더티한 그대로의 멘토는 바로 저입니다.

김주현 (연수구 동춘1동)



가족봉사



신랑은 대부도, 정확하게 말하면 불도라는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바다에서 조개와 굴을 캐는 것으로 어머니는 생계를 꾸리셨습니다. 둘째

아들인 신랑은 어머니의 바지런함과 따뜻함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다섯 자식 중 그 누구보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며, 늘 어머니 손이 가야 하는 자리에 신랑은 먼저 움직여 그 일을 해 놓곤 하는 효자랍니다.

중학교부터 인천으로 유학을 와서 혼자 자취를 하며 학교에 다녔던 신랑은 여름방학이 되면 어김없이 불도로 내려가 어머니를 도왔다고 합니다. 조개를 캐고, 계를 잡고, 그것을 내다 팔고, 밭을 메고, 풀을 뽑고, 감자를 캐고, 그런 농사꾼으로, 어부로서의 일상으로 방학을 보내곤 했답니다. 얼굴이 까맣게 그을리고, 밭에선 모기와 풀벌레에게 쏘이면서도, 땀으로 등짝이 흠뻑 젖어도 불평 한번 하지 않는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찌감자와 찌뽕이 간식의 전부였던 시골집의 여름. 하지만 신랑은 그 여름이 너무도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만큼 엄마가 덜 힘들겠지. 내가 좀 더 움직여야지.’라고 말입니다. 신랑이 보냈던 여름방학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잠시 눈을 감아 봅니다. 속깊은 아들의 여름방학. 그걸 알고 계시는 어머니의 아린 마음. 모두가 제 가슴에 향기롭게 남았습니다.

변정임(서구 심곡동)

여름방학과 생일

내가 11살(초등학교 5학년), 8월 4일 엄마는 귀엽고 깜찍한 여동생을 낳으셨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운 날이었다. 원두막에 가서 참외도 먹고 냇가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잡고 여름방학 동안에 하고 싶은 일이 많았었는데 엄마가 몸조리를 하셔야 되니 나는 계획이 깨져 혼자 중얼거리며 투덜댔다. 엄마는 왜 이렇게 더울 때 동생을 낳으셨을까? 시원할 때 낳으시지…

뒤집고 기어 다니고 앉고 서고 걸음마 하고 엄마 맘마 언니! 하고 따라다닐 동생을 머릿속에 그리며 신기해서 들여다 보는걸로 여름방학이 훌쩍 지나가 개학을 며칠 앞두고 밀린 일기를 쓰느라 찢찢 땀었는데…

내가 결혼해서 36살에 엄마가 동생을 낳으신지 24년 후 8월 4일에 아들을 낳아 엄마와 딸 2대가 여름방학 중에 같은 날 아이를 낳았답니다.

원경아! 48번째 생일, 재호야 24번째 생일 축하한다. 사랑해. 언니, 엄마가.

조원옥 (강화군 선원면)



김치~찰칵

이번 달 주제 ‘여름방학’



“우리 아빠 힘자랑 하는 것 좀 보”

아빠랑 무의도에 놀러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 우리가 다 커버렸어요.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조영림 (남구 학익1동)



방학은 즐거워~

대학 2학년 때 방학을 즐긴다고 친구랑 계곡에 놀러가 재미있게 놀았는데... 어 느새 마음에 여유조차 찾을 수 없는 마지막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네요.
한소희 (남동구 간석4동)



조스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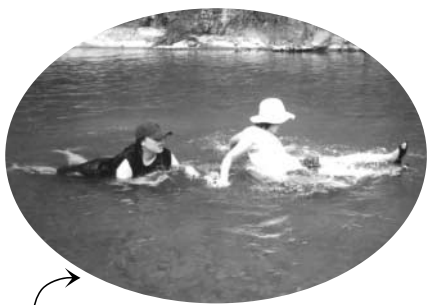
작년 여름 방학때 유명산 계곡에서 물놀이 장면입니다. 퀴즈를 맞춰 탄 물놀이 조스 튜브가 어찌나 고맙던지. 동생과 함께 처음으로 텐트에서 잠을 자기도 했는데 산 속의 밤은 여름에도 춥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즐거웠던 여름 방학이 감사합니다.
김건구 (남구 용현동)



해변의 생머리 소녀3총사

지난해 낙산해수욕장에 놀러 갔을때 찍은 사진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수영이 금지되자 생머리를 한 꼬마들이 아쉬운듯 한참동안 바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주란 (남구 송의동)



대학교 마지막 여름방학

밖으로 나가자고 애원하는 친구(왼쪽)의 말도 무시한채 물놀이에만 집중하고 있는 제 모습이 웃기네요.
강셀라 (서구 가정3동)

부자 3형제

몇 년 전 여름방학을 이용해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서 그늘진 숲에서 동생들과 멋진 포즈를 취해봤어요. 미스코리아 감이쥬? 잠자는 동생은 더 미남인데~ 우리 삼형제 이쁘게 살게요~ 아자아자 파이팅~!

박미경 (남구 주안동)



갯벌체험

작년 아들내미 여름방학 때 갔던 왕산해수욕장입니다. 조개도 잡고 갯벌에서 놀기도 하고 오토바이 비슷한 것도 빌려줘서 아들보다 더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올해도 여름방학이 벌써 시작되었더군요.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오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관참은 아빠 아닌가요?
김완수 (계양구 굴현동)



분수인어

시청 앞 분수에는 인어가 산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자 아이들은 벗어놓은 옷을 입은채 '풍덩'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송영복 (남구 용현동)



info box

시청에서 무료법률상담 받으세요

우리는 사법연수원의 협조를 받아 사법연수생 6명이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를 이용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하던 법률상담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자치단체장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무상으로 법률상담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대해 궁금하거나 자문이 필요한 시민이나 단체는 시청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시 _ 7월 4일~8월 12일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_ 시청 종합민원실

문의 _ 시 법무담당관실 (440-2282)

2기 자연안내자 양성 초급과정 개설

인천녹색연합에서는 아름다운 지구인과 초록세상을 만들어갈 자연안내자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 기간 : 9월~11월 (3개월)

• 시간 : 매주 2회 (화·금요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 인천녹색연합 교육실

• 참가대상 : 교육후 반드시 자연안내 자원봉사할 사람

• 인원 : 20명 (선착순)

• 수강료 : 없음 (참가비 : 3만원)

• 강의내용 : 식물 및 곤충 등 자연생태 교육 20강

문의 _ 인천녹색연합 (548-6274 www.greenincheon.org)

저소득 체납세대 지원합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에 의한 체납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확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직자, 일용·임시직, 영세상인, 농어민 등 경제적인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 시행기간 : 6월 13일~8월 12일

• 시행방법

1. 한시적 결손처분

- 3개월 이상 체납자로 결손처분 확대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에 의해 적용대상이 됩니다.

- 결손처분 확대 기준 (단위 : 만원 이하)

재 산	전월세	소득	자 동 차	비 고
760	3,800	100	환가치 없는 자동차 1대	소득과 재산 또는 전월세 중복 불인정

• 재산(부동산, 전월세)과 소득을 각각 소유할 경우 불인정(자동차는 중복허용)

• 소득(종합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은 부과소득이 아니고 D/B 기초자료상 금액적용

• 재산(토지) + 전월세 20%한 금액이 76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정

※분할납부 또는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결손가능

- 지원 내용 : 2005년 5월분 까지 발생한 지역체납보험료 전액을 결손처분

2. 가산금 면제 (체납보험료 납부 시)

- 적용 대상 : 3개월 이상 체납자로서 다음기준에 해당되는 세대 (단위 : 만원 이하)

재 산	전월세	소득	자 동 차	비 고
1,900	9,500	500	환가치 없는 자동차 1대	소득과 재산 또는 전월세 중복 인정

- 지원 내용 : 시행기간동안 완납한 세대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를 원칙으로하며, 별도 신청 없이 완납한 경우에도 납부한 가산금을 환급 (일부 납부한 경우에도 면제가능(분할납부 포함))

3. 한시적 징수유예

- 적용 대상

•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개인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 결정자는 제외)

• 1년 이내 부도, 도산, 파산, 화제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지된 체납자

• 세대원 소유 전재산이 경매 중이거나 재산가액 80%이상이 저당, 압류된 세대

- 세부업무처리 요령

• 체납보험료에 대한 납부계획서 및 관련서류 사본 징구

4. 업무처리 절차

- 대상세대 : 공단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어 통보 받은 세대

- 처리기준 : 해당지사를 방문하여 면담한 신청자 및 유선 상담 후 우편 및 팩스 신청자

문의 _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1588-1125 / 452-7114 www.nhic.or.kr)

다음달 테마는 애장품

다음달 테마는 '나의 애장품'입니다. 그동안 아끼고 소중하게 보관해온 물건이나 기념품의 사연을 담은 글(200자 원고지 3매)과 사진을 보내 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8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미추홀문화회관 명사무료특강

인천예총에서 운영하는 미추홀문화회관에서 인천시민들의 즐겁고 건강한 삶을 위한 명사초청무료특강을 다음과 개최합니다.

1. 한방으로 건강 지키기

- 일시 : 9월 9일~30일 (4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8시
- 장소 : 3층 다목적홀
- 강사 : 한마음 한의원장 정규일
- 강의내용 : 침, 뜸, 부항의 효능과 효과 / 건강 관리법 / 진맥 및 건강 상담 /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침뜸법

2. 자녀 교육을 위한 인천역사 바로알기

- 일시 : 9월 9일~30일 (4회)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12시
- 장소 : 3층 다목적홀
- 강사 : 역사학자 김영주
- 강의내용 : 자랑스런 우리 조상들의 열이 살아 숨쉬고 있는 곳 이 인천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속에서 우리 인천의 뿌리를 배우면서 자녀들의 미래 성공을 위한 발전의 기틀을 가정에서 세우기 위한 바로알기 강좌입니다.

문의 _ 인천예총 미추홀문화회관

(765-0220, 0250 / www.mchart.co.kr)

인천의료원에서 무료 간기능 검사 받으세요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및 비인가 시설 수용인, 저소득층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소외계층 시민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무료 검진은 간기능 검사입니다.

- 기간 : 8월 24일~26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 장소 :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1층 (내과 2)

문의 _ 인천의료원 내과2 (580~6024), 인천의료원 총무인사팀 (580~6478, 580~6651~5)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수강생 모집

간석4동에 위치한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미술교육과정 등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과정명
 - 미술교육과정 : 미술치료 (1단계, 3단계, 4단계), 서양화, 서예, 사진영상, 플라워디자인과 전례꽃꽂이
 - 전문지도사과정 : 아동미술실기지도사, 특수아동지도사, 노인교육지도사, 방과후 아동지도사, 독서지도사
- 모집기간 : 8월 27(토)까지
- 교육기간 : 8월 29일(월)~12월 10일(토)
- 교육장소 :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간석4동)

문의 _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438-8131~4, www.iccu.ac.kr/life)

부동산경매컨설턴트과정 수강생 모집

부동산 경매와 관련, 부동산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해 주는 부동산경매컨설턴트과정을 모집합니다. 본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신 분에게는 인천대학교 총장 명의로 부동산경매컨설턴트의 자격인증을 수여합니다.

- 모집대상 :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교육기간 : 9월 5일(월)~12월 19일(월) (매주 월·수 오후 6시 30분~오후 9시 30분)
- 강의장소 : 인천대학교 본관 4층 422호(인천 제물포역에서 도보 5분)
- 원서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7월 18일(월)~9월 2일(금)
 - 접수장소 : 본대학 본관 9층 (906호) 경영혁신원 (770-8919)
 - 금액 : 전형료 10,000원 및 등록금 700,000원(교재비 포함. 본원의 강사진이 작성한 교재를 무료로 배포)
 - 기타 : 반명함판 사진 2매
 - 납부장소 : 우리은행 인천대학교 출장소 또는 계좌입금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 혜택 부여

접수 및 문의 _ 인천대학교 경영혁신원 (770-8919)

해양환경 수기 공모합니다

인천해양경찰서에서는 해양환경의 소중함과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제1회 해양환경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참가대상 : 인천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응모주제 : 해양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수기(해양환경도 우미 활동, 바다정화운동, 해양캠프, 해양생태 체험, 갯벌체험 등 기타 해양환경과 관련된 체험수기)
- 응모형식 : 200자 원고지 5매 ~ 12매 이내(중·고등학생 10매 내외)
- 응모요령 : 개인별/학교별/단체별 우편 또는 인편 접수 (제출시 원고 앞면에 학교(학년, 반), 이름, 전화번호(학교, 집), 우편번호, 주소(학교, 집)를 정확히 기재)
- 응모기간 : 7월 1일(금) ~ 8월 31일(수) 도착분에 한함
- 보낼곳 : 우)400-201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103번지,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오염관리과
- 입상자 발표 : 2005년 9월중, 인천해양경찰서 홈페이지(알림광장) 및 개별통보
- 시상식 : 10월중, 인천해양경찰서 / 시상식 참가자 개별 통보
- 시상내역
 - 금상 1명 : 해양경찰청장상 및 상금 30만원
 - 은상 2명 : 인천광역시교육감상 및 상금 15만원
 - 동상 4명 : 인천해양경찰서장상 및 상금 10만원

- 특별상 1명 : 인천 YMCA회장상 및 상금 10만원
- 입선 1명 : 인천해양경찰서장상 및 상금 5만원

• 기타유의사항

- 응모작품은 미 발표작이어야 하며, 추후 입상작이 표절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을 환수 조치함.
-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품에 대해서는 인천해양경찰서가 소유권을 가짐

문의 _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오염관리과 (884-2112)

인하대병원에서 건강공개강좌가 열립니다

인하대병원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해 매달 무료 건강공개강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8월 30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 강좌내용 : 이명의 진단과 치료 (이비인후과 최호석 교수)
- 기타 : 참석하시는 분에게는 무료 주차권이 발급됩니다.

문의 _ 인하대병원 교육연구부 (890-2640~2)

인하대학교 사회교육원 수강생 모집

인하대학교에서 사회교육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성인교육과정
 - 전문교육과정 : 시창작, 소설창작, 댄스스포츠, 생활요가, 영어, 한문고전(사서삼경), 피부미용최고지도자 등
 - 자격취득과정 : 플라워샵창업, 플라워디자인전문가, 화훼장식기능사, 공인중개사자격취득, 부동산전문상담사(경매) 등
 - 특별과정 : 어린이영어연극지도자, 영재교사양성, 수학영재교사양성, 사랑방학교
- 어린이교육과정
 - 유아교육 : 레고닥타 과학교실, 리틀사이언스, 발레스쿨, 생각을 키우는 표현미술교실, 유아크레파스
 - 초등(고학년) : 대생과 스케치, 어린이성악재능교실, 영어일기쓰기, 외국인과 신나는 영어나라
 - 초등(저학년) : 뮤지컬 잉글리시, 생각을 키우는 표현미술교실, 스케치&수채화, 어린이성악재능교실, 외국인과 신나는 영어나라, 창의력개발 종이접기, 크레파스&수채화, 키즈사이언스, 프리벨 은물
- 시민대학 : 여성교양문화과정, 여성사회참여과정, 중견지도자과정, 에버그린아카데미
- 학점은행 : 경영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교양
 - 원서접수 : 8월 31일(수)까지
 - 원서·입학안내서는 사회교육관(정문 옆) 및 정문·후문 수위실에서 24시간 배부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사진(3×4Cm) 1매 전 화접수도 가능함.

문의 _ 인하대학교 사회교육원

(860-8292~6 / http://life.inha.ac.kr)

제2회 인천 물사랑 사진공모전



와 같이 제2회 ‘인천 물사랑 사진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작품주제 : 인천지역의 물을 소재로 한 생활·자연환경 사진으로 물 사랑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작품
- 참가자격 : 제한없음
- 출품규격 : 11"×14" (컬러·흑백 사진, 장정불요)
- 출품수량 : 1인당 3점 이내
- 출 품 료 : 없음
- 접수기간 : 9월 1일(목) ~ 20일(화)
- 심사결과발표 : 10월 7일(금)
 -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인천일보(www.incheontimes.com), 인천녹색연합(www.greenincheon.org) 홈페이지 게재
 - 시상식 및 전시행사 일정은 심사결과 발표시 공지
- 공모부문 및 시상내역

일반부문(대학생 포함)			학생부문(초·중·고등학생)		
대 상	1 점	상장 및 상금 300만원	대 상	1 점	상장 및 노트북
금 상	2 점	상장 및 상금 100만원	금 상	2 점	상장 및 디지털카메라
은 상	4 점	상장 및 상금 50만원	은 상	4 점	상장 및 MP3
동 상	8 점	상장 및 상금 30만원	동 상	8 점	상장 및 문화상품권(10만원)
입 선	40점	상장 및 상금 10만원	입 선	40점	상장 및 문화상품권(3만원)

- 기타사항
 - 공모전 출품시 필름 원판 또는 디지털카메라 원본파일을 공모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입상작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에 귀속되며, 작품으로 인한 초상권 문제는 작품 출품자에게 있음
 - 당선된 작품중 타 공모전에 입상한 사례가 있거나 컴퓨터 합성사진 등으로 판명될 경우 입상을 취소하며, 낙선된 작품은 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 직접 방문하여 인수하여야 함

접수처 및 문의 _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 (남동구 구월동 1127 한미은행빌딩 8층 440-1518), 인천녹색연합 (계양구 계산3동 1062 하이베라스 D-712, 548-6274)

인천대학교 인천시민대학 학생 모집합니다

〈일반교육과정〉

- 정책교육과정 : 시민아카데미, 경영법률아카데미
- 예술교육과정 : 사진예술, 서예, 서양화, 한국화
- 전문교육과정 : 꽃방경영 및 창업, 플라워디자인 외
- 교양교육과정 : 문예창작, 생활영어, 생활일본어, 생활중국어
- 건강교육과정 : 요가(지도자, 생활, 직장인, 임산부), 웰빙건강교실,

〈학점은행제(총69과목)〉

- 화예학전공 : 꽃예술론 등 11과목
- 아동미술학전공 : 미술교육론 등 10과목
- 서양화 전공 : 현대회화론 등 16과목
- 체육학 전공 : 스포츠경영학 등 9과목
- 교양 : 중국어 등 23과목
 - 교육기간 : 9월 5일~12월 17일(15주)
 - 교육장소 : 인천대학교 및 구월동캠퍼스
 - 모집기간 : 8월 1일~8월 20일(20일간)
 - 수강료
 - 일반교육과정 : 120,000원~250,000원(과정별 전화문의)
 - 학점은행제 : 이론 150,000원, 실기 200,000원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별도, 수강료는 수강신청 당일 납부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및 방문접수

• 등록방법 : 온라인 무통장 입금(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인터넷접수자는 생략)

문의 _ 인천시민대학 교학과

(441-5394~5, <http://www.cecui.com>)

초대합니다. 청소년의 날 제2회 Youth Day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Youth Day가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 대상 : 청소년 및 지역주민 누구나
- 일시 : 8월 28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 내용 : 우리말 많이 알기 골든벨 대회, 8m28cm 김밥 만들기, 보드게임, 댄스댄스, 영화상영, 탁구 등

문의 _ 화수청소년문화의집 (762-7942)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사회교육원 신입생 모집

- 모집인원 : 00명(국악전공, 한국무용전공)
- 수업년한 : 1년제(2급자격증), 2년제(1급자격증)
- 입학자격 : 남녀, 연령, 학력 제한 없이 입학 가능함
- 수업일 : 매주 월, 목, 오후 4시~6시
- 개강일시 : 9월 5일(월) 오후 4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사진2매
- 지도교수 : 인간문화재 보유자와 이수자 전문 국악실기인 교수
- 수업내용 : 효학개론, 국악개론, 서도민요, 경기민요, 남도민요, 판소리, 장구장단법, 사물놀이, 지휘법, 음악통론, 한국무용기본

및 10가지 이상 한국무용작품

- 특전 : 총장명의로 자격인증서 및 국악강사2급 또는 1급 자격증 취득후 학교, 학원, 유치원, 문화센터, 복지관, 경로대학 등에서 국악강사로 활동할 수 있음

문의 _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행정실

(433-1996-9 www.hyo.ac.kr)

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장선거가 실시됩니다

8월 11일 실시되는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를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법이 개정되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 합니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 7월 30일~8월 10일(12일간)

• 선거운동방법

- 선거공보 · 소형인쇄물 발송
-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다음의 위반사례예시를 참고하여 우리위원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운동방법외의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법에 위반 될 수 있으며,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약속하는 행위
- 조합원들의 친목모임이나 관광 · 야유회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E-mail,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 불법선거운동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시면 사례금 또는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보장됩니다.

신고 및 제보 _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934-2172, 1588-3939)


사업 고민
좌~악 퍼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광고료(1개월 · 컬러 기준)

표4 (맨뒤 겉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562,000원	1,665,000원	1,281,000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편집팀(032-440-2042, 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溫故知新



온고지신 -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새것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모양은 “케익”이며, 그 맛과 내용물은 우리의 전통음식인 “떡”
삼국시대이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전통음식인 “떡”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떡케익전문기업 떡보의하루 “떡케익”
이전 떡케익으로 기쁨을 함께하세요!



예약주문이나 하루 전 주문하시면 인천, 부천 전 지역 무료배달드리며,
일반떡, 혼수떡, 돌, 백일, 답례떡등 예약하시면 제작하여 무료배달드립니다.

문의전화 1544-1582